

第20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7.5.8.~5.11.)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20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187
II.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89
III.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93
IV.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23
V. 부 록	
1. 의사일정안	285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5월 8일 (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20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신현영)

(11시 00분 개식)

(11시 02분 폐식)

● 의사담당 신현영

지금부터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회
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5월 8일 (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0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20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부웅 위원 외 5인 발의)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성영웅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접수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정명환

의사과장 정명환입니다.

임시회 소집요구와 안건 접수 상황 및 도의회 안전처리 상황, 그리고 이번 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 4월 30일 김부웅 교육위원 외 5

인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요구와 함께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같은 날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에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202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24일 제259회 도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교육행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으며, 신설학교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5분)

● 의장 성영웅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을 처리하시고 5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은 신설학교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5월 1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5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06분)

● 의장 성영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

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부웅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김부웅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 외 5인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종전 같은 법률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며, 출석일시는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9일 오전 10시와 제3차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1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청북도교육감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및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관계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출석요구 사유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고 교육에 관한 주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교육시책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즉시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

(11시 09분)

● 의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견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말씀을 드

[제204회-제1차 본회의]

리겠습니다.

2007년 9월 개교 예정인 성화초등학교와 2007년 3월 미완공 상태로 개교한 송절중학교의 공사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신설학교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김부웅 위원님과 박노성 위원님께서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웅,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의사일정안(별첨 1)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5월 9일 (수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

(10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께서는 경북 김천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표자 회의 참석차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사전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에서 20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며, 질문하시

는 내용은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의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곽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회 부의장 곽정수입니다.

교육청 진입로에 각양각색 꽃들이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기쁨을 주는 축복의 계절에 관심·사랑·화합의 희망찬 충북 교육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기웅 교육감님과 1만 7천여 교육가족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내신제 고입전형 방법이 과열방지 등 공교육 정상화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학생들의 학력저하 문제가 심각하여 본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고입선발에 내신성적만이 아닌 고사를 병행 도입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개선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2007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예산을 검토해 본 결과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충남 전북 제주 강원도가 중학생의 학력 향상 및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고입선발을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고 이미 고사를 도

입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교 1,2학년에서 내신 성적을 잘 받지 못한 경우에 3학년 과정에서 아예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지식 폭발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더 발전하게 이끌어 가는 사람은 창의력을 가진 0.1%, 추종하는 0.9%, 합쳐서 1%라고 하는데 현행 입시제도로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포기하는 낙오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입학자격 선발제도를 내신성적에만 의지하지 않고 고사제도를 병행 실시하여 이와 같은 우려를 타개하였으면 합니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를 실시하고 미 확보된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초·중학교의 남자교사의 일정 비율을 할당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초·중학교의 여자 교사 신규 임용을 제한하고 남자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일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 교원 신규임용 시 남자교사

의 최저 선발 비율을 30%까지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공무원시험처럼 합격자 중 성별이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제를 교원 임용고시에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교원도 공무원인데 특정직이라고 양성평등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제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여교사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충북지역의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72%, 중학교 여교사 비율은 57%로 서울보다는 낮지만 비율이 제일 낮은 전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신규교사 임용비율은, 본도의 신규교사 여교사 임용비율은 더 심각해서 금년도 신규 중등 여교사 비율은 77%, 초등은 79%가 여교사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아이들이 여성화되고 국가의 미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자녀의 남자담임은 행운으로 통한다라는 말을 학부모에게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여성 지원자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합격자 비율이 높아지는 건데 이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역차별이고 구시대적 발상이다, 남교사가 대

다수인 시대에 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남성화가 되었느냐고 항변하고 어불성설이라고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도 있고, 조화로운 인간을 기르는 교육에서는 과도한 성비 불균형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넘어 고객을 감동시켜야 하는 고객이 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도 중요하지만 남교사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를, 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언제까지나 묵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진급 시에 다면평가제도 적용 및 진학지도사 선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교원평가제가 전면 실시되지 못하고 일부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평가받고 있는 현실에서 평가는 부담스럽지만 필연적으로 사회적 요구사항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검증을 통해 인성과 자질이 높은 관리자를 발탁하기 위해 그동안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승진심사 시 학부모 평가를

반영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초·중·고의 교장, 교감 승진 심사 및 교장 중임까지 확대하여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의 평가를 반영하고, 또 베테랑 고3 담임교사를 대입정보 전문인력으로 선발, 자체적으로 연구 분석한 정보를 매년 일선학교에 제공하는 진학지도사를 선발한다고 발표한 교육청이 있습니다.

교장, 교감은 일반교사가 아닌 관리자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종전의 면접고사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과거 동료 교사 등 다면적으로 검증하여 부적격자 선발을 방지하고 교감 승진을 희망하는 교원들에게 평소부터 자기관리와 직무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산하에서도 극히 일부지만 성추행, 촌지, 심한 체벌 등 문제를 일으킨 교사가 있었고, 같은 동료 교사들끼리도 욕두문자나 욕탄전을 방불케하는 미욕한 행동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교직은 성직이라고 합니다.

교원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을 수 없지만 수업지도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평소 사생활과 품위 등 결격 사유 등을 검증하여 반영한다면 그만큼 지

탄을 받는 일이 적고 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인재를 발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면도 없는 다면평가자가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무늬만 다면평가가 아닌 피평가자와 같이 근무한 동료 교사나 과거 담임을 맡았던 학생의 학부모 등 관련자가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상당부분 의존해 왔던 대입정보 수립 및 분석 제공만을 전담할 진학지도사를 선발하여 활용한다면 학원의존도도 줄어들고 믿을 수 있는 신속한 정보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감 승진과 교장 중임 시에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관리자를 발탁하기 위한 다면평가 도입, 대입정보 수립 및 분석을 전담할 진학지도사를 선발할 것을 제안하는데 충청북도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 학교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직 교장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상대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좌천 전직 처분 취소 청구 명목으로 소청하였다가 기각되자 이번에는 청주지검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인구에 회자되다보니 본 위원도 보도 기사를 읽은 바 기사내용에 “사기당한 사건

이 교육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며 남의 이야기 하듯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장노릇을 할 때 보직교사를 원하지 않는 교사에게 학교운영상 보직 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항명하거나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한 예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실무급도 아닌 관리직 교원으로서는 신망의 본보기가 되어 학생을 교육할 교장이 인사권자인 교육감을 상대로 고소한 행위가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타 부처 공무원들은 우리 교육계를 어떻게 볼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방 행정직 공무원의 승진 방안에 관한 의견입니다.

교육은 앞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술선수범하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할 때 바람직한 목표에 정상적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공무원에 대한 승진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현재의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승진규정은 중앙정부의 승진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서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이 5년 이상 늦은 지방공무원은 고위직인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해도 승진소요 최저연수인 5년을 채우지 못해 승진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까지 퇴직자로 인한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11명의 연쇄 승진 인사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요 승진 연한을 채우지 못해서 부이사관 승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이사관 자리가 나도 승진요건을 갖춘 공무원이 없어서 상당기간 직무대리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무원들은 승진하는 맛에 공무원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승진만큼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지방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의 공무원임용령을 그대로 적용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은 교육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정이 쉽지 않고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장기경력자를 승진시켜 사기를 북돋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능력자를 발탁 승진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교육감께서는 높은 해안에 장신이라 더 멀리 더 높이 내다보고 복안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나, 승진 발탁은 임용권자의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다만 임용 시 참고의견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빙교장제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진규정상 지나치게 긴 경력평정 기간으로 인하여 교장의 고령화 등 교직사회가 침체되고 학교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연공서열형 교장승진을 축소하고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고 교원자격증 없는 외부인사에게도 일정비율을 개방하는 초·중·고의 교장공모제가 2007년 9월부터 시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능력이 탁월한 젊은 교장들에게 중임제한 횟수에 산입하지 않는 초빙교장제를 시행하였으나 형식적 운영이 지속되어 대폭 보완하여 시범 실시한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빙교장제가 도입될 때 참 좋

은 제도라고 공감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소규모의 시골학교에서만 실시하다보니 응모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서 무늬만 초빙교장제가 된 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은 시 소재의 큰 규모 학교를 지정하여 교장초빙제를 실시한다면 경쟁력도 높아지고 학교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경쟁력이 높아지면 교장이 한 일이 없거나 우리 교장은 퇴직할 준비만 한다는 일부 학부모의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초빙교장제를 2007학년도 3월부터 청주시 관내 학교인 죽림초등학교와 중앙여자중학교에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7년 9월부터 시범 실시 예정인 교장공모제에 대하여 교육계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어제의 지식이 쓸모 없이 되어 버리는 지식 폭발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일 수도 있지만 초빙교장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 시점에서 내부형, 개방형은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장공모제를 일괄적으로 시범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을 발전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며 지역발전을 촉진할

교장초빙제만 우선 시행하고 예비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확대되도록 청주시 소재 학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8월말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학교라면無理 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장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청주시 소재 규모가 큰 학교에 초빙교장제를 대폭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의 공동 사택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도 시대별 기능에 따라 역할이 바뀌어 와서 21세기는 많은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비롯한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장거리 통근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차원에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제천 단양 옥천 음성 등에 총 16동의 공동사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와 같이 운영이 되고 내 집 같이 잘 관리되는지, 각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공동사택의 규모, 입주자 현황, 관리하고 있는 학교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공동사택 관리를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동사택 관리 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대로 관리하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징수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입주자 관리비를 장기 미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교직원 공동사택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 곽정수였습니다.

● 의장 성영웅

곽정수 교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입하를 지난 산하가 신록으로 푸르러가고 성큼 다가든 한낮의 더위에 성급한 개구쟁이들은 벌써 개울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들에서는 지금 한창 중간고사를 치르거나 이미 끝내고 소풍을 갈 시기인 요즘 춘추복의 긴소매가 성가셔진 학생들로부터는 반팔 하복착용을 앞당겨 달라는 건의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마침 들녘에는 제철을 맞은 모내기가 한창인 이때 우리 도의 한해 교육농사도 학년말의 알찬 수확을 향해 더욱 공을 들

일 수 있도록 어린 모 한 포기도 세심히 매만지는 농부의 심정으로, 뒷자리에 처진 학생의 작은 아픔에도 무심치 않은 일선 선생님들의 정성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져 있는 행정질문의 소임을 다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상업정보계 고등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를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따라 해마다 수업료와 입학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된 시행규칙과 별표에 나와 있는 서식을 보면은 상업정보계 학교를 실업계가 아닌 비실업계로 분류해서 일반 인문계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분명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그 취지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그렇게 해온 것인지, 또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를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상업정보계 학교 또는 통합형 고등학교에 관련 학과를 농공수산계 학과들 처럼 실업계로 분류해서 납입료를 저감 책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럴 경우에 재정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업교육의 위기가

심각한 현실 속에서 그 타개책의 하나로 종래 어감이 좋지 않은 실업계라는 그 명칭조차 전문계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화, 특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매니아를 양성해서 이후 졸업자들이 취업과 학위취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그 기본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수업료 부분도 재정비해서 상업정보계를 농공수산계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른 시·도들도 그렇게 하니까, 또는 뭐 농공수산계와 동일하게 저감을 하려면 재정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안이한 태도를 넘어서서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을 듣고 싶고, 아울러 이 사안이 금년말에 있을 교육감 선거에서 공약으로도 제시될만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기대도 가져보면서 입지자 분들에게도 검토를 권합니다.

둘째, 본청 산하 직속기관 중 학생교육 담당 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전국 16개 시·도에 22개 학생교육 담당 직속기관의 편제와 인력구성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도의 충청북도학

생종합수련원이 전문교육 요원 배치가 가장 미흡하고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를 제외한 15개 모든 시·도에 학생교육원 또는 학생종합수련원이 장학관이거나 교육연구관이 원장이고요, 한두 명의 교육연구관과 10명 내외의 연구사, 장학사들, 그리고 다수의 지도요원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도는 일반직 원장에 교육요원도 태부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초·중·고생의 심신수련을 담당하는 학생종합수련원에 교육담당 인력이 몇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련원의 역할이 시설제공이나 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낳게 합니다.

특히 종례 단재교육연수원이 맡아오던 학생 정신교육 프로그램들도 거의 이관되어서 명실공히 학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 된만큼 학생들의 정신교육과 심성계발, 신체단련, 체험활동 등의 다양한 수련활동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라면서, 그 방안으로 원장 선생님이나 교육요원 확대 배치 등 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인사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10월 행정사무감사시에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투명성 제고를 위해 타 시·도처럼 전보내신제 실시를 제안한 데 대해서 교육감님께서서는 희망근무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신 바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지만 특히 인사시스템은 그 기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작동 체계입니다.

여기에는 인사권자의 안목과 재량 못지 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고른 기회를 주면서 능력의 최대치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인사 대상자들의 희망과 내신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 또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합니다. 조직의 특성이나 현실적인 난점 등에 고려할 점들도 없지는 않겠지만 인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고 인사권자의 의지가 관건일 것으로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특히 지난번 답변 이후의 진척 상황이나 추진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비정규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TV 개그프로그램에 같기도 하는 코너가 있다고 합니다.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그려지면서 웃음을 자아

내는 코너라는데 요즘 비정규직의 처지를 그 같기도에 견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일이 맡겨져 있기는 한데 직원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반쪽 노동자,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만민이 평등하다는 요즘 세상에도 일자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시한부 노동자, 우리 교육계에도 4천 명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을 우리 교육감님이라고 부르며 바라보는 같은 교육가족인데 한 가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학교 비정규직이 충북교육가족의 20%가 넘습니다. 채용조차 교육감님 이름으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도 관리의 눈길이라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이 분들의 소망입니다.

올 7월 1일자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특히 이 분들은 신분안정이 위협받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요지만 간략하게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도내 사립학교들에는 정원 내 인원이면 서도 다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별 해당 교과 및 근무연수 등 이들의 실태를 알려주시고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신 변형별 근로의 일종인 무기계약 근로라는 형식으로 신분안정을 도모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특히 탈락 직종 경우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특히 학교장 채용의 경우에 근무일수 축소 등의 근로조건 변경도 가능한지, 혹시 해당 사례가 있다면 그 경위와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통합하고 외주화나 용역화할 계획이 선 것이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외주화 대상 업무선정에도 원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성이 강한 업무는 최대한 외주를 피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근로조건 보호나 고용안정화를 깨트리지 않는 방향으로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학교급식 관련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요지만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물 관리 대책입니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학교 음용수 수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급식소의 음용 설비, 교정의 음수대, 복도의 정수기 같은 그런 급수시설 개선을 포함한 급년도 학교 먹는 물 관리 종합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급식 종사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각급 학교별로 조리종사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나이나 또는 기숙사 유무에 따라서 급식 양이나 근무 강도에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배정을 보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똑같이 학생들의 머리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의 경우에 1일 3식의 15시간 내외의 격무에 시달려서 기피대상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환근무기간 단축이나 근무평정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개선할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식자재 확보 계획이 있는지. 부산시의 경우처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구매를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작은 학교들의 경우에 이동 급식으로 인한 불편들이 많고 이에 대한 민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나 보조인력 지원 같은 그런 해소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교사 문화동아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교사 문화 역량은 타시·도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 음악, 미술, 체육, 영상 같은 분야에 자발적인 소모임과 동아리 활동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제도적인 뒷받침은커녕 발표장이나 기회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잘 살려내면 교사들의 특기 신장은 물론, 학교문화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의 자생적인 교사 소모임, 또 문화동아리들 중에서 그간에 활동실적이 뚜렷한 모임들을 발굴 선정해서 현재 교과연구모임 수준의 지원을 하고 연1회 정도 교사문화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합니다.

교사문화제를 여는 날은 요즘 말들이 많은 스승의 날을 학년말로 옮겨서 도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사축제를 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바라기로는 교육문화회관 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동아리 모임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북교육문화센터가 된

다면 지역의 교육문화는 더욱 꽃필 것입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바이오문화회관에 공간 마련이 어렵다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유휴시설을 나중에 최우선하여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부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이제 충북교육은 인화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육가족을 이끄는 이기용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행정경영과 김효겸 부감님, 박의상 교육국장님, 또 신강택 관리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도교육청 구성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일선 가족들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뉴스와 각종 현수막에서 전국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교육가족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관심·사랑·화합의 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행정에 작은 의견이나마 말씀드리고 싶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본인이 요청했던 교육기관의 각종 행사 때 교원들의 예우와 학교장들의 위상을 높여 주는 일에 앞장서신 점과 전보 내신 순위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장들의 인사권을 존중해 주신 점 등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등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교사가 학기중에 군입대 휴직이나 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 발령하는 것을 보면 청주시내 출산휴가 후 휴직에 들어가는 담임교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미리 작성해 놓은 전입후보자 명단을 가지고 시·군에 대기중인 현직 담임교사 중에서 대부분 이동 발령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여러 명의 이동 사유가 발생되므로 중간에 부득이 여러 반의 학급담임이 바뀌는 게 현실인데 이로 인해 많은 1년에 두세 번씩 담임이 바뀌는 부작용이 초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시내라도 결원이 생긴 자리에 초임

교사를 발령하면 그 부작용이 최소화할 것이라고 시·군 교장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9월 1일자 발령도 신설학교에 보충되는 자원 정도로 이동을 축소하고 신규 발령을 원칙으로 하면 학년 도중에 담임 교사가 바뀌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장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군의 중심지 학교나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업무량에 비하여 부장교사에 혜택이 적기 때문에 부장교사의 확보가 쉽지 않아서 학교 관리자들이 매년 학년 초마다 크게 어려움을 겪는데, 승진 시와 마찬가지로 전보 시에도 근무가산점을 부여하여 혜택을 주면 다소 해결이 쉽겠다는 일선 교장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인사기록카드 정리의 개선방안입니다.

교원들의 각종 연수나 포상 등의 기록을 시행 부서에서 직접 나이스로 입력하면 업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일선 교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일선 교감들의 건의가 빈번합니다.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도교육청 주요 부서의 근무자를 공모해서 의욕 있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보임하는 제도는 크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인데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여서 확대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공무원이 기획 부서에 대거 참여케 해 달라는 서신이 접수되었는데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 사서, 보건, 건축 등 기술직으로 보임해도 무리가 없는 부서에 일반직이 보임된 경우에는 소수직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바뀌볼 용의가 없습니까?

2006년 10월 행정감사에서는 사서 4명, 보건 1명, 건축 3명 등 20년 이상 같은 직급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감사 이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는 몇 명이고, 시설직 공무원들을 복수직에 임용한 수는 몇 명입니까?

또한 강원 충남 대전 제주 등은 지역교육청의 시설직에 6급 공무원을 복수로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받아들여서 건축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줄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지역교육청 직속 도서관의 근무여건을 보면 5명의 직원을 교대해 가며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14시간 동안 지칠 정도로 과다하게 근무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요.

또 월 2만원씩 받는 수당도 20년 이상 동결된 상태인데 이것은 다른 직보다 적은 액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참고로 보건직 6,7급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학교보건급식 담당과 영양교사의 보직문제입니다.

지역교육청의 학교보건급식담당을 영양사가 담당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영양사들이 점차 영양교사로 전직될 것으로 보아 보건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 영양교사 임용 확대의 연차 계획을 밝혀주시고,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그 업무가 서로 같음에도 대우나 명칭만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대우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영양사들을 한꺼번에 영양교사로 임용하기가 어렵다면 이들 선발과 탈락자 사이에 공정성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그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선발 방법은 괜찮은지요.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비정규직의 근무일수 개선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은 연간 275일을 근무토록 하

고 있는데 토요일무가 있는 주일의 근무일수 계산 방법이 학교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근무자들 사이에 불평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도록 이를 통일하도록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유아교육 문제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 동료 위원님들과 경남 창원의 유아교육 현장을 견학한 일이 있는데 이때 경남의 유아교육 현황을 설명하던 그 곳의 장학관님이 충북은 우리나라 최고의 유아교육 수준을 가진 선진도라고 하여 무척 기뻐했습니다만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을 기획하는 최고 책임자인 담당장학관도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니고 경남을 비롯한 강원 부산 경기 광주 등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원이 개설되어 있고, 서울도 금년에 개설이 준비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원 설치를 이제부터라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 담당장학관을 유아교육전문가로 임명할 생각은 없는지요.

제가 조사한 이 자료에 의하면요 단설 유치원의 원감 배치 현황을 알아봤더니 각 광역시와 경기도는 물론이고, 충남 전

북 전남 경북 경남 등에도 단설유치원에 원감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산성유치원 한 곳에만 원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와 너무 형평에 차이가 났습니다.

따라서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원감의 정원 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한 내용이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배치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에도 원아들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보건교사의 배치가 필요하지만 배치는커녕 순회 근무마저 제외되어 있는데 유아들의 보건안전 교육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초·중학교와 100명이 넘는 유치원의 경우 배치된 인력을 비교해 보면 청주 남성유치원이 학생 132명에 직원이 8명이고 내곡초등학교가 학생 65명에 직원이 14명이니 차이가 나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후, 또 제198회 정원조정을 위한 교육위원회 임시회와 각종 예산심의 때마다 본인이 간청했던 단설유치원의 기능직 배치 문제라도 우선 해결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동안 추진된 사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세아 반이 편성된 경우 담임교사 혼자서 20명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소변도 제대로 못 가리는 아기들이라 오줌싼 아이를 돌보는 사이에 다른 한쪽에서는 싸우는 아이, 큰소리로 우는 아이, 집에 간다고 떼쓰는 아이 등 보조 인력 없이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인데 간부 여러분께서도 1시간만이라도 유아교육 현장에서 관찰해 보신다면 보조인력의 배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장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케어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용실이 없는 경우 일반실을 같이 사용하는 관계로 교실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담당 교사들과 원아들이 이 교실저 교실을 전전공공하고 있는 현실인데 전용실 확보 대책이 없이 에듀케어반을 이대로 계속 운영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설유치원 건물관리 문제인데 허가신청 당시 노유시설 또는 학교시설로 설립된 것에 따라서 소방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노유시설로 건축 허가된 곳은 금년 5월말까지 완전 방염 처리된 시설로 개선하라는 소방 당국의 경고가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대책은 서 있습니까?

시·군별 교육장 재량 사업중에서 단설 유치원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째입니다.

김병우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직속기관간의 사업조정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기관별로 점검해 봤더니 비슷한 사업, 즉 통합해서 운영하면 인력과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과감하게 통합 또는 삭제해서 인력 낭비와 예산을 절약하도록 혁신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덟 번째, 부서별로 추진되고 있는 국외연수의 문제입니다.

지난 추경예산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 다만 나타난 통계에서 유·초·중·고의 학교별로 크게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직도 부서별로 일부 부서에 편중되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똑같은 할 수 없더라도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문제입니다.

역시 행정감사 때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적 활동이 되도록 지도를 요청한 바 있는데 '06년과 '07년의 계획과 실시에서 그 결과는 어떻

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열 번째, 화장실 청소 문제입니다.

지난달 제203회 임시회에서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때 사업비를 수정 없이 의결했습니다만 신문보도 내용대로 화장실 청소 문제를 용역에만 의지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교육적으로 많은 부작용도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예컨대 어렵고 더러운 일도 해보며 인내심, 봉사정신, 주변 정리습관 등 긍정적인 면을 배우는 기회인데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열한 번째, 역시 김병우 위원님의 질문이었습니다만 실업계 고등학교, 현 전문계 고등학교의 지원학생 급감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는 때-제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대책 없이 수용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기술교육 기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숙식비 제공, 수업료 면제 등 적극적인 혜택으로 지원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겸직 또는 순회 근무하는 영양교사나 보건교사의 경우 근무조건을 보면은 겸직하는 학교는 주1회만 근무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가 때나 원

소속 학교에 행사가 있는 주일에는 겸직 학교에 하루도 근무치 않게 되기 때문에 겸직 학교에서는 보건안전 교육과 급식지도에 커다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며, 시간적인 제약으로 자세히 설명치 못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제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성명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성 위원

박노성 교육위원입니다.

관심·사랑·화합을 바탕으로 희망교육, 실력 충북의 확실한 실현을 기원하오

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2006년도 제23회 충청북도 단재교육상 시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상 수상자 중 공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분은 언제 공적조서를 제출하였으며, 공적심사 과정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 질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6년도 공로부문 수상자 추천 공문을 2006년 10월 16일 해당 기관에 접수되었으나 이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 기관에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수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도교육청 공로부문 공적조서 접수는 몇 건이며 공적심사 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교육감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에 대하여 거론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21일 제258회 충청북도 임시회에서 건설문화위원회 이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토착세력에 굴복하는 인사,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인사, 화려한 퇴임용 인사, 구태의연한 정실 인사 등을 비판하는 강한 목소리가 충북도

의회 및 교육계 안팎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언구 의원께서는 실례로 교육전문직 경력이 전무한 교장을 교육장으로, 교장이 임명되던 본청 장학관 자리에 교감을 앉혀 교심을 이반시켰다는 여론입니다.

물론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같이 해 교장연수를 받은 교감선생님들은 아직도 일선학교에서 승진만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특혜 인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도의회 이언구 위원께서는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둔 교육장 3명을 전보 발령시키는 전대미문의 인사가 단행되었는가 하면 모 학교의 경우 정년 6개월 남은 교장의 부임으로 6개월 후에 교장이 또 바뀌어야 하는 관계로 우리 학교는 교장 양성소냐 하면서 학부형들이 하소연하고 나섰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품과 교육경륜, 그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인사를 실시해왔고, 특히 교육장은 교육경륜과 조직관리 능력, 교육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교장급에서 임용하여 왔습니다. 교육장은 단위 지역의 초·중등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직위로써 지역사회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야 하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다고 답변하셨는데 언론에서는 차기 교육감 선거 포석에 둔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두터운 신임을 받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장에 임명하였다고 했는데 각종 언론매체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관심·사랑·화합을 늘 강조하시는데 과연 이번 인사를 어느 누구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었으며, 이런 인사가 화합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고 보십니까? 지역 언론이나 교육계나 민심이 이번 인사에 대하여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의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장 11명 중 9명을 교체한 것은 아무리 봐도 12월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인사로 각종 언론은 물론 도의회에서 이언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년 6개월 된 교육장도 2명이나 전직된 것은 또 어찌된 일입니까?

또한 도의회 답변에서 정년이 6개월 남은 교육장을 교장으로 전직 임용한 것은 신망이 훼손된 교육장을 일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하여 명예롭게 정

년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정년을 1년 남긴 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임시킨 것이 인사의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신망이 훼손된 교육자라면 차라리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해야 함에도 일평생 교육을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하여 명예롭게 정년을 맞을 수 있게 도와드리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와준 교장선생님이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크게 반발하며 심지어는 교육감을 충북교육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교육장 인사권자인 이기용 교육감을 상대로 청주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충북교육을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고 교육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힘으로 인하여 교육을 사랑하는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이 한결같이 교육감의 인사행정과 자질에 의구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가족에게 입힌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본 위원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학생과 교육가족, 도민들에게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연태 전 교육장은 이번 사건으

로 인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데 교육감님께서서는 위로 방문이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당시 박연태 교육장에게 본청 간부를 보내 사표를 내라, 전직 희망원을 내달라, 교장 중임원을 내달라고 수 차례 종용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사문제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초할지도 모를 일이라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태 전 교육장은 자신을 인사문제에 마지막 희생양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인사권자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인터뷰하였는데 이에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두 분 교육장의 경우 후진양성을 위하여 명예롭게 물러나겠다는 두 분의 뜻에 따라 퇴임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퇴 종용이나 권유도 없이 순순히 사퇴하였다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 도의회 답변대로 후진양성을 위해 스스로 명예롭게 물러났다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임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에는 적절한 규정과 원칙이 있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역대 어느 교육감께서 이런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비난을 받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인사는 그로 인하여 충북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음은 물론 많은 충북교육 가족들에게 실망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 후 정년을 앞두고 3명의 교육자에게 큰 고통을 준 인사가 이기용 교육감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3월 정기인사 시 주무과장이 인사 작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주무과장을 인사작업에서 배제하고 인사담당 장학관하고만 인사를 했단 말입니까? 이 소문이 도내에 회자되어 교육감님의 처신과 교육경력, 행정능력 등에 대하여 한없는 의구심과 불신이 팽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도 본청 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에게는 교육장으로 임용했더라면 얼마나 훌

륭한 인사라고 평가받겠습니까?

어느 과장은 코드에 맞지 않는다고 인사작업에 참여도 안 시키고 일선 교장으로 전직시키고 어느 과장은 교육장에 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교육감님, 충북교육의 난맥상에 얼마나 문제가 많기에 심지어 지방의회인 제천시의회 최종섭 의장으로부터 교원인사제도 개선 건의문을 2007년 3월 23일경 접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의문 1에는 교사들의 근무회피 지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과 건의문 2, 교사전보내신 제출 근무연한 조정 및 교과별 우수 신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토록 인사관리 기준 개정과 건의문을, 3, 교사 근무회피 지역에는 교사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달라는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건의사항 전체를 당장 수렴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나 제천시의회 차원에서 교육감님에게 건의문을 내게끔 한 것은 제천지역 인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전

보 내신에 관한 건입니다.

국립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려면 최소한도 3년 이상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2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교장을 임용토록 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출 현황과 향후 2년간 인터넷통신비 지원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질문입니다.

지역교육청 장학 인력 배치 현황과 장학 인력 증원 배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교단선진화 추진계획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프로젝트 TV 구입 연도를 조사해 주시고, 향후 3년간 투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제정 현황과 학교급식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급식비 지원 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우리 충청북도는 너무 미약한 사항입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본청 간부 여러분!

본 위원은 오늘 금쪽 같은 이 시간에 충북교육과 충북교육감의 바른 인사로 다시는 부하직원으로부터 고소당하는 일과 충북도의회나 지방의회의 도마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기원하며, 교육가족과 학생, 충북 도민의 깊은 상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박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수웅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교육위원 서수웅입니다.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교육비전으로 삼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을 기르는 일에 관심과 사랑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본청 관계 직원님들의 노고에 찬사와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아주 작으나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축진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

는 키즈케어와 관련하여 묻습니다.

지금까지 키즈케어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학교수는 얼마나 되며, 유괴로부터의 보호, 학교폭력예방, 학교 비상연락망 체계 등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와 관련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누출 위험과 교권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걱정하기도 하는데 교육감님의 공식적인 견해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2세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최근 국제결혼 가정 2세들의 취학률이 증가하면서 교육현장에도 국제이해 교육을 보편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0년 이후 국제결혼한 20만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었으며, 지난 2005년 기준 6천여명의 초등학생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 단일민족 정서에 따른 인종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이해 교육과 관련한 대처 방안에 관하여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수는 얼마나 되며, 다문화 가정 출신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 측면의 문제점은 없는지, 국제이해 교육이나 방과후 학교의 외국어 교육에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를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모범사례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근 들어 잉글리시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학교수가 많은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잉글리시존이 확보된 학교수와 활용 실태 및 파악하고 있는 성과 사례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고요, 만일 잉글리시존 설치가 외국어 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보신다면 여건에 맞게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용의와 방안이 있으시면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초·중등 연구사수 불균형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시정 용의에 대해서 점차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인사 때 전혀 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이유와 약속했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향후 계획을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음에 정부는 21세기를 이끌 인재양성을 위하여 2002년부터 우수인재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도에서 지금까지 우수인재상을 수상한 학생수는 연도별, 영역별 몇 명이나 되며, 그들에게 부여한 수상 이후에 또 다른 보상이나 영재교육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밝혀주시고요, 교육부 정책과 관련해서 본 도에서도 충북인재상을 제정하여 초·중등 학생들의 영재성 발휘에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혹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 본 도가 실시하고 있는 현황 및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시스템 시범 운영과 관련해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미 1차 연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행·재정을 한 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시스템,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기대되는 장점 이외에 역기능은 없는 것인지.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 수 있는지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 차원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주도된 사업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최종 목적이 결국 모든 것을 데이터화하여 조직 구성원들을 개개인의 통합 성과관리로 평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원인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천명하여 교육가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업무와 관련해서, 가시적인 혁신업무방안의 하나로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공모를 통해서 제4기 교원업무경감팀을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업무를 경감한다는 목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 방안을 강구한다는 야심찬 출발로 희망을 주었던

연구팀이 과연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 활동내용과 실적을 밝혀주시고, 기대만큼의 실적이 없었다면 그 솔직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서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적 요구 속에서 관심과 사랑으로 충북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교육혁신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고 전국 ICT 활용 연구대회 및 과학발명 경진대회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충북교육이 활기차게 발전되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실력 있는 학생, 꿈이 실현되는 충북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문서 및 출장 증가로 인해서 수업결손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교육혁신 차원에서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리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공문서 처리, 각종 회의참석, 출장 등으로 인해서 수업결손이 발생하는가 하면 교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교재 연구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이후 많은 공문의 하달로 인해 공문서 처리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하면 갖가지 잦은 회의 출장으로 수업결손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일선 교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평가에 따른 교원 상호간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교사평가 기준이 연1회 공개수업 등 표면적, 피상적 평가방식을 통해서 획일적 평가지표로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 중심의 평가보다는 업무 중심의 평가와 연장자 우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에 의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학교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 하고, 교원평가의 목적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둘째로 교원의 수업시수 감축, 교원증원, 잡무경감 등 제도적 보완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고, 셋째, 교원평가의 주기를 현 1년에서 2년 내지 3년 이상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승진 대상자 서류점검 결과 탈락자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 12월 24일자 공문을 통해서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평점 세부시행 지침을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청소년 단체 지도교사로 활동하여 3년이 경과한 후부터 승진가산점으로 월 0.004점, 상한점은 0.24점을 부여하기로 추진한 바가 있고, 2006년 3월 14일자 공문을 통해서 청소년단체 조직 운영에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6년 11월 30일자 공문으로 2006학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실적을 포함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담당 교사들은 2004년의 공문을 바탕으로 2005년도에 제출한 내용대로 2006년도 실적서류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2007년 3월 8일자 공문을 통해서 2006학년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 실적 증빙서류 보완 제출요구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현직 교사들이 충분한 사전 안내가 없어 학생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도 서류 미비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에 대한 교사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청소년단체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네 번째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 수도요금 경감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은 비교적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도는 교육용이며 공익적 사업이므로 업무용 요금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의 수도 급수 조례를 살펴보면 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에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공익상 필요로 인정을 한다면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지역의 학교 상수도 요금 현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유치원 1개원에 146만 4,000원,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1억 5,327만 4,000원, 중학교 17개 학교에 7,657만 8,000원, 고등학교 11개교에 1억 1,457만 9,000원, 특수학교 3개 학교에 307만 2,000원, 수도요금 합계가 3억 4,896만 7,0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중 공공요금에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약 9%이고, 이중 1.5%가 수도요금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 부천시는 2005년 9월 30일자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을 교육용으로 최저가로 낮추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5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각 시·군 교육청과 그리고 학부모 단체 등과 연계해서 시·군 자치 단체들이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용 수도요금이 감면되어 학교 운영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등 직접 교육에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여교사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성인력 활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유아의 보육문제 때문입니다.

출산을 또한 1.13명으로 최저라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출산장려책을

퍼고 있고, 보육의 사회화를 위한 보육예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여교사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교사를 위한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교사협의회 건의가 있습니다.

충주지역을 예로 들어 보면 전체 교사 중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유치원 129명 중 127명으로 98.4%, 초등학교 교원 753명 중 463명인 61.5%, 중학교가 511명 중 255명 이계 49.9%, 고등학교가 499명 중 145명으로 29%, 총원 1,892명 중 990명이 여교사입니다. 그 비율이 약 53%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유치원은 62.7%, 초등학교는 37%, 중학교 32.5%, 고등학교가 48.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 보육사가 운영하는 영유아 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개인 보모나 가정보육시설 이용으로 어려움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런 여교사들의 모임에서 보육시설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건의방안에 의하면 첫째, 설립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소규모 탁아소를 설치하는 안과 2안으로 지역 내에 1

개 내지 2개의 센터 탁아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대가 있느냐.

첫째로 자녀 보육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증가가 이루어지고, 둘째로 자녀 보육 문제가 해결되면 안정적 직장생활로 교육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현대화 사업의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아름다운 학교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서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화장실이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한 결과 시·군교육청 별로 몇 개 학교는 아름다운 학교,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었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화장실이 건축된 지 10년 내지 15년이 지나 물이 새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아 악취가 나고 변기가 고장나 사용에 불편을 겪는 학교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4월 13일 처리된 2007년도 제1회

추경 시 도내 시·군 교육청별 화장실 중·개축 및 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 교육청에서 6실, 충주교육청 11실, 제천 11실, 청원 11실, 보은이 4실, 영동 2실, 진천 3실, 음성 4실, 단양 2실을 중·개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중·개축 비용이 많이 소요돼서 그 예산을 보면 증축에 1실당 약 7,000만원, 보수비용이 1실당 5,500만원 내지 6,500만원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일에 정비되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학교 화장실이 지역간, 학교간 시설 격차가 너무 커서 시설의 평준화가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화장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2007년도 물가 및 화장실 건축단가로 환산하여 알려주시고, 화장실 현대화 계획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얼마나 걸리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용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심도 있게 준비해 주신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질문의 요점에 성의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성영웅, 부의장 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박노성, 서수웅,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호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7년 5월 11일 (금요일) 10시 00분

議事日程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附議된 案件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위원님들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계서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좌석에서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23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보충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기용

존경하는 성영용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6만여 학생들이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교육가족 모두의 뜻으로 알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주신 교육위원님들의 순서에 따라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부교육감과 관계관 등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곽정수 위원님께서 200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선발 제도를 내신성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고사제도를 병행 실시하는 고입선발 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

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도의 순수 내신제 고입 전형방법이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교간의 교육격차의 완화, 과열 고입 경쟁 완화, 전인교육의 여건 성숙 등 공교육 정상화에 실질적 기여 등의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학력 저하, 학교 선택권 제한 등의 부정적인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학생의 학력향상 및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최근 선발고사를 도입한 제주 충남 전남과 더불어 강원도와 경북 포항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고입선발고사를 도입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부산도 2009학년도부터 선발고사 시행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광주도 선발고사 도입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책정해 연구 용역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제도는 일선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제도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 계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2005년도 79.3%, 2006년도 66.95%가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찬성했으며, 2007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총 2만 9,783명의 응답자 중 66.02%인 1만 9,663명이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학생, 학부모, 교사 대부분이 현행 수준 내신제 고입전형 방법을 선호하고 갑자기 고입전형 방법을 바꿀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학생, 학교간 과열 고입경쟁을 부추기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내신제 고입전형이 학력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연구결과는 없는 실정으로 타 시·도의 고입 선발고사 시행과정과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향후 본 도의 고입 선발고사 실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즉시 시행이나 시행 방안 연구를 위한 2007년도 예산을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별 최적 학습모형 개발 보급, 수준별 평가문항 개발 보급,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인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e-learning 체제 운영, EBS 수능방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보급과 아울러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환류하는 등

학력관리종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상업·정보계 고교의 수업료 책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업·정보계 학교를 전문계가 아닌 비전문계로 분류해서 일반 인문고와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는 취지나 판단기준, 언제부터 그렇게 해온 것인지,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상업·정보 계열이 있는 학교는 15개교이며, 상업·정보 계열은 충청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문계로 분류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비전문계로 분류하여 징수하는 근거로는 1963년 1월 25일 개정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상업·정보 계열을 비전문계로 분류되어 왔으며, 1969년 7월 19일자로 위 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계와 비전문계의 분류가 삭제되고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종전의 문교부령 기준으로 비전문계로 분류하고 현재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징수하여 왔습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강원도 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에서 상업·정보계를 비전문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정보계 학교 또는 통합형 학교의 관련 학과를 전문계로 분류해서 납입료를 저감 책정할 의향과 재정부담 소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1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업고가 전문고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상업·정보 계열을 비전문계고로 분류하여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고 전문계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타 시·도교육청과의 비교, 교육재정 여건, 타 전문계열과의 형평성 및 직업교육 살리기 차원 등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정부담액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23억여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연수원 설치, 원감 배치, 보건교사 배치, 기능직 배치, 에듀케어실 확보 등 유아교육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지원을 위한 연수원 설치 예산 및 전문직, 기능직 정원 확보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당장 추진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부서간 충분

한 협의를 통하여 검토하겠으며, 유아담당 장학관을 유아교육 전공자로 임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의 원감 배치 현황은 9개 단설유치원 중 청주 산성유치원에만 1명을 배치하였고, 8개 유치원에 원감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원 문제에 의한 것이며, 현재 전원 배치를 위하여 매년 증원을 요청하고 있고, 지난해 원장, 원감 각 1명씩 증원되어 3월 1일자로 홍광유치원에 원장을 발령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원감 증원을 통하여 증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3학급 이상 원감 미배치 병설유치원 4개원에 우선 배치하고 원감 미배치 단설유치원 8개원에도 순차적으로 배치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문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에 18학급 이상의 학급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보건교사를 배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나 초·중등 보건교사 순회와 겸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연구 검토하겠으며, 유치원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을 통하여 보건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의 기능직 배치는 단설유치원 9개원 중 4개원에는 기능직을 배치하고 있고, 5개원에는 현재까지 기능직을

배치하지 못하고 있으나 단설유치원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능직 공무원 배치를 검토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모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에듀케어 및 종일반 운영은 3세아 학급 31개원, 3,4세 혼합반 32개원에는 모두 종일반 보조원, 또는 종일반을 담당하는 별도의 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3세 학급만을 보조하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 종일반 보조원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이 확충되면 3세아 학급에 보조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에듀케어 운영을 위해서는 에듀케어 전용실이 필요하나 현재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 15개원 중 산성유치원을 제외한 14개원이 일반 교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에듀케어 운영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2005년 8개원에서 2006년 14개원, 2007년 15개원으로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듀케어 전용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사 증·개축이 필요하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에듀케어 전용실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추후 설립되는 유치원에는

설계 시부터 에듀케어 전용실을 포함하도록 하여 점차 에듀케어 전용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단설유치원에 지원한 교육장 재량사업비 현황은 2005년 청주 남성유치원 1,400만원, 2006년 청주 덕성유치원 400만원, 산성유치원 200만원, 2007년도 음성 대소유치원 60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지원하여 단설유치원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단설유치원은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로 실내장식물 등을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 처리된 시설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단설유치원 9개원 모두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방염 처리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지만 남성유치원과 홍광유치원을 제외한 7개원은 방염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5월말까지 방염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곽정수 위원님과 박노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박 모 교육장 인사발령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모 교육장에 대한 인사발령은 공인으로서 관직과 실명 보도에 따른 교육청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평생 교육활동에 공헌하신 점을 고려하여 학교 현장으로

옮겨드려 편안한 정년을 맞을 수 있도록
모시려는 뜻에서 발령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
청심사에서도 박 모 교육장의 소청에 대
하여 이유 없다고 기각 결정 통보가 접수
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
면, 명예훼손이란 생각지도 않은 고소 사
실을 접하고 만감이 교차되는 느낌이었습
니다.

어느 누가 한술밥을 먹으며 생활한 직
장 동료의 명예를 훼손하려 하겠습니까.

본인은 충북교육을 위하여 고뇌하며 소
신껏 실시한 인사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
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다.

다음은 서수웅 위원님께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른 2세들의 학생수 및 학교운영
의 문제점, 교육활동 참여 우수사례에 대
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수
는 2007년 4월 현재 초등학생 642명, 중
학생 66명, 고등학생 15명, 특수학교 2명
등 72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375명과 비교해 193%인 350명이 증가하였
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
며, 자녀가 1명 624 가정, 2명 46 가정,
3명이 3 가정으로 총 673 가정에서 학생

들이 취학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학교운영의 문제
점에 대하여는 우리말과 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지도가 필요하며 학
교생활과 관련하여 단일민족이라는 고정
관념을 가지고 이단시할 수 있으므로 다
문화화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하나되는 체험
캠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활동을 학교 실정에 맞게 갖도록 하겠으
며,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이 1,2학년에서
부터는 학력 및 생활에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지만 3,4학년부터는 무리없이 학교생
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가 국제 이해 교
육이나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한 사항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이주 여성들이 연극을 통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시키는 활동으로 봉정초등학
교에서 월 1회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으
며, 충청북도청과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주민 중 원어민 보조교사 양
성과정을 개설하여 12명을 교육시킨 후
내수초등학교 등 11개교에 배치하여 원어
민 보조강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원어민 토요 영어교실, 학교

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농산촌 방학 아카데미 등에 39명의 국제결혼 이주민이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였으며, 강사로 활동하는 결혼 이주민 중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문화의 차이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검증 절차를 통한 강사 선정 및 사전 강사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과 관련한 우수사례로는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 국제결혼 자녀와 하나 되기 캠프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학부모, 일반 학생 등이 함께 참여하여 모두가 하나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옥천한국어학당, 선문대학어학원 등 관련 단체들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의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육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도록 자연스럽게 배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위원님께서 건축된 지 10년 이상 되어 물이 새거나 악취가 심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화장실 수, 소요 예산, 현대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학교, 행복한 학교 가꾸기를 위하여 생활공간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 화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우수 교를 선정하여 학교 및 공로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화장실이 도내에는 총 1,897실이 있으며, 개보수를 완료하였거나 상태가 양호한 화장실을 제외한 개보수 대상 화장실은 532실로 개보수에 약 22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약 128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향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5년 후 2012년에는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장실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부교육감 김효겸입니다.

먼저곽정수 위원님께서 교장초빙제 확대 시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현재는 시범운영기간으로 교육부의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므로 우리 교육청 재량에 따라 교장초빙제를 우선 시행하고 정착된 후에 내부형,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하는 등 교육부에서 지정한 공모 유형의 수를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7년 9월 1일자 교장공모제 예비 학교를 지정함에 있어 위원님의 말씀처럼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며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주시 소재 서원고와 청원군 소재 학교 갈원초를 지정하여 공모절차에 따라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학생교육담당 직속기관의 전문성 제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학생종합수련원에 일반직 원장을 비롯하여 교육 요원으로는 진천 수련운영부에 수련지도사 별정7급 각 1명과 파견교사 1명 등 총 3명이 학생교육 요원으로 활동중이며, 대천 임해수련운영부에

는 교육연구사 1명, 수련지도사 2명과 파견교사 1명, 계약직 2명 등 총 6명이 학생들의 정신교육, 체험활동, 해양활동, 신체 단련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며,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므로 교육요원 확대 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원장 선임은 일반직 정원과 관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초등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기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 시·군 전보 순위명부에 따라 발령을 하고 최종 결원이 생긴 학교에 신규 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기중 인사 이동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관리 기준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1일자 청주에 신규 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1학기에 발령한 신규 교사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의 차원에서 인사이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위원님께서 인터넷통신비 지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 우리 도교육청의 인터넷통신비 지출액은 2005년도 26억 6,244만원, 2006년도 38억 4,243만 6,000원이며 향후 2년간 지원 계획은 학교급 및 학급수별 지원기준에 따라 도교육청에서 전액 확보하여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총액 교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6학급 이하 및 분교장에는 2메가급으로 교당 월 57만 7,000원, 7학급 내지 23학급에는 5메가급으로 교당 월 66만 2,000원, 고등학교 및 24학급 이상 교에는 10메가급으로 교당 월 74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수용 위원님께서 2002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수인재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인재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우수인재상과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충북인재상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우수인재상은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3년도까지는 매년 4명, 2004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2명의 학생이 교육인적자원

부 우수인재상을 수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영역별 우수인재상 수상 현황은 답변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	학업우수 수부문	특수 능 부문	장애 복 부문	소년소 녀가장 부 부문	차정 부 부문	계
2002	1명	2명		1명		4명
2003	2명		1명	1명		4명
2004	1명	1명				2명
2005	1명				1명	2명
2006		1명	1명			2명
계	5명	4명	2명	2명	1명	14명

충북인재상은 우리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시상하는 것으로 교육부 우수인재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된 학생 중 수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을 심사하여 충북인재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연도별, 영역별 충북인재상 시상 현황은 답변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도	학업 우수 부 부문	특수 재능 부 부문	장애 극복 부 부문	소년 소녀 가장 부 부문	봉사 부 부문	창의성 부 부문	계
2002	8명	1명	2명				11명
2003	7명	8명	1명	1명			17명
2004	5명	2명			2명	1명	10명
2005	6명	2명		1명	1명		10명
2006	8명	1명	1명				10명
계	34명	14명	4명	2명	3명	1명	58명

교육부 주관 우수인재상과 충북인재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하였기 때문에 추후 관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해당 학생의 과거 담임교사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수 지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인재상

은 12년간 초·중등 교육을 받고 대학이나 사회로 진출하기 직전 어느 정도 우수 인재로서 완성단계에 있는 인재를 발굴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상 대상자 범위를 초·중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교원평가에 따른 교원 상호간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평가는 교원간 순위나 등급을 구분하지 않는 절대평가로 교원 상호간의 갈등요인은 없으나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설득을 위해 평가 취지나 당위성의 저변 확산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또한 평가지표도 학교 여건과 실정에 따라 도 지표를 수정 적용하거나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창의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었고, 평가주기는 위원님의 의견처럼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부재자 투표지 회송방식의 무기명 제출 방식으로 하되 평가관리자 이외에 대외비로 관리하며 평가지표도 학교운영 교

장, 교감과 학습지도 교사에 관한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타당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명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혁신복지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수용 위원님께서 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과 교원업무경감연구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재정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은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시스템을 핵심으로 15개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 통합 구축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의 장점은 모든 행·재정 업무처리를 자동화하고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전·후임자간 또는 직원 상호간의 업무파악이 용이할뿐 아니라

예산편성부터 지출까지 One-Stop으로 연계 처리되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개통 예정으로 구축 중이며 금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8년도부터 모든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이 본격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단위학교는 학교회계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 두 가지만 보급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시스템의 역기능 또는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것은 통합시스템이 이제 막 도입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초기에 나타나는 시스템 활용에 대한 생소함과 익숙하지 않는데 따른 직원들의 혼란 및 거부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전자문서시스템이 통합시스템에 포함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한시적으로 개별 업무가 다소 늘어나는 부담에 대한 불만감과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감이 야기되는 일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과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5개 시스템의 모든 업무처리 실적을 데이터화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 학생수용계획, 맞춤형통계, 학교시설관리시스템 등 14개 시스템은 업무를 자동화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인 업무에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과관리시스템은 조직의 임무와 목표달성을 위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역량과 성과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도모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중앙 부처 및 공공기관은 2005년부터 도입하여 정착단계에 있고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는 단계로 성과관리에서 평가는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성과관리시스템은 개인별 단위업무만 평소에 충실히 수행하면 모든 성과관리가 자동화 처리되므로 훨씬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과평가는 단위업무 추진실적과 지식마일리지 점수, 업무 역량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게 되고, 평가결과는 교육정책 개선과 자원배분, 업무 능력 향상 등에 환류하여 더욱 일 잘하는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통합시스템 운영에 따른 역기능이나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거부반응을 해소하겠으며,

교육부에서 금년 하반기에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합시스템 내에 포함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업무증가에 따른 부담감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개인의 업무량 및 난이도, 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추가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통합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업무경감연구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의 활동내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기는 2002년 7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교원업무부담 사례 수집 및 업무개선방안 협의 8회, 공문서 감축방안 등 24개 분야 86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86개 과제 중 77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9개 과제는 개선을 위해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2기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연구협의회 9회, 18개 분야 44개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였으며

33개 과제가 개선되었고 11개 과제는 향후 개선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3기는 2005년 4월 22일부터 2006년 7월 11일까지 연구협의회 4회와 연구활동과 관련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제4기 연구팀은 자발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연구팀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구성 인원을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12명과 공개모집을 통한 교사 2명, 일반직 4명 등 18명으로 구성하여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동아리 활동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전체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교원업무와 관련이 많은 공문서 관리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선정하였고, 매월 개인별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발굴하고자 하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경감 체감 효과가 확산되도록 교원업무경감연구팀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혁신복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걱정수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남교사 일정 비율 임용과 다면평가 반영 및 진학지도사 선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남교사 일정 비율 임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교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중등교사 임용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있는데 어느 한 성의 임용비율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법 개정 등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면평가 반영 및 진학지도사 선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감승진과 교장중임 시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관리자 발탁을 위하여 교감승진은 경력, 근무성적 평정 결과 및 가산점 등 현행 승진규정에 의해 임용수위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교장중임은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없이 건강진단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중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적격심의를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이 제안하신 동료 교사나 학부모의 다면평가를 반영하는 문제는 교원평가가 전면 실시되는 2008년 이후 교육부와 협의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학지도사 선발에 대한 답변에 앞서 위원님의 대학 진학지도에 대한 애정 어린 제안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교육전문직은 국가공무원 정원령에 의거 임용되고 있으며 현재 각 부서별 신설업무 증가로 전문직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원 내에서 특정업무 전담 지도사를 임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이며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관련과 교사문화 동아리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 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수질기준에 적합하되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끓여서 제 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및 정수기에 대하여는 연4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음용수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 설치된 음용시설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통하여 급수시설 주변 청결과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억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개 학교의 급수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2007년 3월 14일 2007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이 라는 공문을 통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배치기준은 1일 1식을 기준으로 마련하였으며 방과 후 교육활동 등에 대한 석식과 기숙사 운영에 따른 조식을 제공하는 학교는 종식기준 인원에 추가적으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급식량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차이가 있음은 사실이나 배치기준은 조리방법과 자율 배식 가능성 여부 등 배식방법의 차이 등도 감안해야 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조리사의 경우 3식 제공 학교 기피현상에 따라 순환보직제로 운영하며 최저 2년 근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조리사를 포함한 격무부서 근무자는 인사상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확보를 위하여 별도로 편성한 예산은 없으나 친환경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2007년도부터 21개 그룹 52개교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제를 운영하여 금년도는 월별로 3가지 이상 품목을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자체 조리로 인한 시설투자 및 단위학교의 급식비 인상요인 발생, 소규모 식재료 납품 기피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반급식을 우리 도내 78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반급식 학교는 운반비를 1일당 1만 2,000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조리된 음식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운반기구 및 배식기구 등의 청결 관리와 운반시간을 최소화 적은 급식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조리 교의 급식소위원회 구성 시 운반급식 학교도 위원으로서 2,3명이 참여하여 불만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문화동아리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회는 수업개선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혁신교육과정연구회 외에도 각 지역별, 교과별, 학교별로 소모임을 만들어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 동아리 모임인 청풍명월 교육사랑 합창단 및 교원미술전, 교원사 진전, 교사문학회, 그 외 각 학교별로 각 동아리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도 교육청에서는 각종 연구회와 교사 동아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바람직한 교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각 동아리 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가칭 교사문화제를 연1회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교육문화회관 안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동아리 모임 공간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중인 바이오교육문화회관 내에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동아리를 위한 7실의 체험학습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그 외에도 유휴시간이 발생하는 체험학습실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동아리 공간을 운영하겠으며, 향후 유휴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 동아리 공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부장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과 인사기록카드 정리 개선방안, 영양교사 임용 및 보건급식담당 보직 문제, 국외연수 현황, 초등학교 운동회 문제, 화장실 청소 문제, 전 문제 기술인력 교육 문제,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의 겸직 및 순회근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장교사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부장교사 임용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 부장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장교사에게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부장교사에게 전보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담임교사들도 가산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부장교사에게 전보가산점을 부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론수렴을 하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기록카드 정리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각종 연수나 포상은 시행 부서인 단재교육연수원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인사담당자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러나 호봉승급의 경우에는 징계, 휴직자 등 승급제한의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해당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

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교사 임용 확대 및 보전급식 담당 보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영양교사 정원은 146명으로 2007년 3월 1일자로 52명을 임용하였고, 2007년 정원 증원 94명에 대하여는 6월중 임용고사를 통하여 선발하고 9월 1일자 인사발령 배치할 계획입니다.

영양교사의 확대 임용 문제는 교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할 수 있으므로 영양교사 정원 증원에 힘쓰고 연차적으로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 전환에 따른 지역교육청의 학교보건급식담당 인력배치 문제는 하반기에 영양교사로 전환된 이후에 지방공무원의 정원 변동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양교사 선발 방법은 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중인 자로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현재의 영양교사 선발 방법은 기존의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상반기 시험까지만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선발방법은 일반교사와 동일하게 경쟁시험으로 치러질 계

획입니다.

다음은 국외연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자 수의 불균형은 학교급별, 부서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외연수를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외연수사업 성격상 불가피하게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실시하는 국외연수 중에서 국외연수자 수가 가장 많은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는 1988년부터 1995년도까지는 중등 영어교사의 비율이 높았지만 1996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초등 영어교육 중요성이 고려되어 초등 영어교사 비율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존의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에 중등학교의 영어 이외 교과 담당교사 과정이 신설되어 초·중등교사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국외연수 결과를 평가하여 영어 이외 교과 현지 어학연수에 유·초등교사를 포함시키는 등 국외연수에 있어서 유·초·중등 교원 불균형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일반직의 경우에는 국외연수의 성격에 따라 성과와 업무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직렬별, 계급별, 남녀별로 적정하게 인원을 안배하여 국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별, 부서별 형평성을 고

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국외연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운동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동회를 대행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학교가 2006년에 42개교에서 2007년도에는 26개교로 16개교가 줄어 38%가 감소하였고 증가 추세에 있던 초등학교 운동회의 행사 대행업체 위탁이 2006년을 고비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운동회 본연의 의미를 살려 감소하면서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행사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학교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근검절약하고 행사의 내실을 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학교장 연찬회 및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하여 계속 강조하고 모든 학교 행사에 대한 낭비적인 요소와 형식적인 면을 지양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평소에 학교생활을 통해 갈고 닦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청소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처음 시행되고 있는 깨끗한 학교 만들기 청소용역 사업

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의견이 상반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규모 등을 감안 4,5개교씩 그룹단위로 관리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주1회 정기적인 순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청소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인력이 방문하지 않는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청소를 평소와 같이 학생들이 참여하여 상호 간 협동심과 봉사정신 등 사회성을 함양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교육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계 기술인력 교육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계고 기술인력 양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술 기피현상과 대학진학 선호 현상으로 인하여 직업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계고 경쟁력을 높이

기 위하여 첫째, 특성화고 운영과 첨단학과 개편을 통하여 실험·실습시설 등 직업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둘째,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 사업 등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셋째, 대학과의 협약학과 운영과 동일계열 진학을 지원하여 진로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계고 지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문계고에 대한 지원자가 줄어 들고 있어 전액 학비지원 혜택을 주어 지원을 높이자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약 84%에 이르고 있는 전문계 고교생의 장학금 수혜율을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지도록 진로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의 겸직 및 순회근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순회근무를 하는 교사는 소속 학교장과 순회 학교장의 합의에 의거 근무일을 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근무일에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가 가능한 날에 변경하여 근무토록 함으로써 보건안전 교육과 급식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별도의 순회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위원님께서 2006년도 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자 선정과 교원인사제도 개선 건의문 관련, 국립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전보내신 현황과 발령 현황, 지역교육청 장학인력 증원 계획, 교단선진화 추진 계획,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06년도 단재교육상 수상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3회 단재교육상 시상 계획은 2006년 10월 13일 본청 및 산하기관에 공문으로 시행하였으며 추천권자는 2006년 11월 10일까지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재교육상 수상자 추천권자는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교육장, 고등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으며, 2006년 단재교육상 공로 부문에 추천된 분은 두 분으로 주식회사 지엔텍 회장 정봉규님은 2006년 11월 6일 대성고등학교장이 추천하였고 금성개발주식회사 송기호님은 2006년 11월 10일 진천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였습니다.

단재교육상 심사위원회는 2006년 11월 27일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은 본청 위원 6명과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외부 위원 9

명을 위촉하여 총 15명으로 구성하였고, 외부 위원으로는 도의원 1명, 교육위원 1명, 대학교수 2명, 변호사 1명, 교육원로 2명, 운영위원장 1명, 사회단체 관계자 1명 등 9명입니다.

수상자에 대한 심사는 2006년 12월 11일 15시 사도부문과 공로·학술부문 2개 분과심사위원회에서 추천 대상자의 공적 자료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16시 단재교육상심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금성개발주식회사 송기호님을 제23회 단재교육상 공로부문 수상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제도 개선 건의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일자 교사 정기인사에서 중등의 경우 제천지역에 신규 교사와 기간제 교사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중등인사관리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 결과 교사의 근무 회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첫째, 전보내신 제출 기간을 현행 1년~5년을 2년~5년으로 변경하는 방안, 둘째, 모든 지역에 지역근무연한제를 설정하여 상호 인사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셋째, 신규 및 기간제 교사가 일정 비율 초과하는 지역은 타 지역으로 분산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인사관리기준 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에서 원거리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후생복지 대책으로 2006년도에 7억 7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주택 11세대 신축과 9동의 사택을 보수하였고, 금년도에는 17억 6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제천, 단양지역에 16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사택 61동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 초·중·고등학교 교장, 교감 전보내신 현황과 발령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학교 교장, 교감의 전보는 우리 교육청과 국립학교간 전출입 동의에 전보되며, 전공교과와 상응 직위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3배수 인원을 추천하면 국립학교에서 적정 대상을 선정하여 임용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은 전보내신 시 국립에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자에 대해 내신조서를 제출하도록 하므로 2년 이상 근무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보 가능 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근무만료 기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두 기관 간 전출입 동의를 합치되고 교육공무원법 제21조의

전직 전보 제한기간인 1년 이상 근무자라면 법규상 교류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장학인력 증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 교육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교육혁신, 교원평가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교육청의 업무량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학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장학인력 현황은 답변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연번	지역청명	장학관수		장학사 수 (연구사)		계
		초등	중등	초등	중등	
1	청주교육청	2	2	7	5(1)	16(1)
2	충주교육청	2	0	6	4	12
3	제천교육청	1	1	5	4	11
4	청원교육청	1	1	5	4	11
5	보은교육청	1	1	4	2	8
6	옥천교육청	1	1	4	2	8
7	영동교육청	1	1	4	2	8
8	진천교육청	1	1	4	2	8
9	괴산증평교육청	1	1	4	4	10
10	음성교육청	1	1	4	2	8
11	단양교육청	1	1	4	2	8
계		13	11	51	33(1)	108(1)

장학인력 증원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에 교육전문직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교육전문직 증원을 요청하여 정원을 증원시키는데 적극 힘쓰겠으며, 아울러 교육감 지역교육청 순방시 교육전문직 증원을 건의한 청주교육청

과 음성교육청에 대한 교육전문직 증원 배치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 프로젝션 TV 구입 연도는 2001년 이전 6,041대, 2002년 602대, 2003년 701대, 2004년 560대, 2005년 342대, 2006년 412대로 연도별 현황은 답변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 대)

구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이전
초	292	213	297	324	315	3,163
중	80	82	109	285	101	1,566
고	40	47	154	92	186	1,312
계	412	342	560	701	602	6,041

교단선진화의 향후 3년간 투자계획은 중설학급에 대하여 급당 35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지원하여 컴퓨터 LCD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및 기타 교단선진화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여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본 학급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매년 학교회계 예산에 급당 30만원 이상을 반영하여 노후 기자재를 수선하거나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나 연차적으로 교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 제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일 현재 학교급식지원조례

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로는 12개 기초자치단체 중 청주시, 충주시,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5개 시·군이며, 2007년 5월 1일 현재 괴산군에서 1억 3,189만원을 지원 받아 괴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괴산지역의 유치원과 각급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있고, 또한 음성군에서 2억 2,968만원을 지원 받아 음성지역에서 생산된 다울찬 쌀을 음성지역의 유치원과 각급 학교 급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주에서 3억, 영동군에서 1억 4,600만원이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천군의 경우 2006년 10월 12일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한 상태이며, 나머지 6개 자치단체도 조례제정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조기에 제정되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수웅 위원님께서 키즈케어 시스템 운영과 초등학교 잉글리시존 관련 단재교육원 초·중등 교육연구사 수 불균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키즈케어 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키즈케어를 운영하고 있는 도내 초등학교는 산성초, 교동초, 남성초, 목행초, 탄금초, 충주성남초, 충주남산초, 충주교

현초, 남일초 등 9개 학교입니다.

키즈케어를 운영하면 학교의 각종 공지사항과 긴급 알림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공지가 가능하며 학교와 학부모간 비상연락망이 구축됨으로 자녀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등·하교 출결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도서관의 도서대출 카드로 겸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하는 상술화와 아동에 대한 과잉보호를 부추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키즈케어와 관련하여 유괴보호, 학교폭력 예방, 학교 비상연락망 체계, 어린이 안전한 등·하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키즈케어 시스템을 활용하면 가정과 학교의 비상 연락 체계를 강화할 수 있고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등·하교에 도움이 되므로 일선학교에서 키즈케어 시스템 활용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학부모회를 활성화하여 가정과 학교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학생상담과 사이버를 이용한 안전한 등·하교 및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의 잉글리시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무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영어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그 방법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잉글리시존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현재 254교 중 75개교로 30%이며 잉글리시존 활용 사례로는 평소 영어 사용 기회가 부족한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 후에 자유롭게 학습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잉글리시존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 초·중등 교육연구사 수 불균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초·중등 전문직은 초등 3명(연구사 2명, 장학사 1명) 중등 8명(연구사 8명)으로 총 11명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약속했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초·중등 연구사의 업무를 균형적으로 안배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는 한편, 금년 9월 1일자 인사에서 중등 연구사 1명을 지역교육청으로 전보 배치하고 초등연구사 1명을 증원하여 다소나마 초·중등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전문직 재조정을 통하여 초·중등이 5 대 6으로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께서 공문서 및 출장 증가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과 청소 년단체 지도교사 승진대상자 서류제출 및 점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과 여교사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문서 및 출장 증가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실시 이후 많은 공문서 하달로 교사들의 수업결손 및 연구시간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문서의 증가로 인한 교사의 업무부담으로 교재 연구가 소홀하지 않도록 학교업무 경감 추진 계획에 의한 공문서 감축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공문서 감축방안으로는 생산 감축, 처리방법 개선, 기재 사항 준수, 보고사무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과교재 연구 시간 부족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정규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담당 업무 처리 등 업무 시간 중에는 잠시도 쉴 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과·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 및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감축하기 위해 전담교사

의 확대, 순회교사제의 원활한 운영과 보결수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기간제 및 시간 강사를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사들의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교무보조, 전산보조, 사서보조, 특수보조, 체육코치, 사무보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겠으며, 교사들의 교재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각종 교육용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우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행사, 출장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 대책에 대하여는 각종 대회와 행사를 통합하거나 간소하게 운영하고 단순한 전담성 회의는 문서로 대체하며 시간 강사 예산 확보 등 보결수업 대책을 학교 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수업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을 조정하여 15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도 단위 행사나 회의는 가능한한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홍보 및 이해 부족으로 일선 담당 교사들이 업무처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6년도 승진가산점 평점을 위한 지도실

적을 검토한 결과 일부 해당 교사의 사전 절차가 미흡하고 기준보다 부풀려 신청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2007년 3월 증빙자료 보완을 요청하여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행 2년간의 과도기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2007년도 운영 지침 시달 시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여 일선 담당교사들로 하여금 간소한 과정을 통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교사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여교사를 위한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 법적으로 보육시설 설치는 현실상 곤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교사의 안정된 근무와 자녀들의 보육을 위해서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및 에듀케어 운영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을 위한 편의시설을 최대한 확충하여 여교사 자녀의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시·군의 단설 및 병설유치원에서 15개 에듀케어실을 오전 7시부터 저녁 8

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107개 병설유치원 중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대 운영하면 여교사의 보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20분이 경과했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교직원 공동주택 관리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통근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도내 공동주택은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음성 단양 등 6개 시·군에 총 22개동 185세대이며, 규모는 세대당 8명에서 23명까지 다양하고 입주자는 초등학교 117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29명, 교육청 및 직속기관 9명 등 총 209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공동 관사의 관리는 초등학교에서 12개동, 중학교에서 3개동, 고등학교에서 1개동, 교육청에서 6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 공동관리비를 징수하는 사항은 12개동이며 공동관리비로 세대당 1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자체규약을 정하여 관리 학교에서 징수하여 전기료, 청소비 등 공동 관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 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비 장기미납 시는 퇴사토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3개월 이상 공동관리비 미납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주자 모두 현직 공무원으로서 관리비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인사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상황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 투명성 제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내신제는 직위에 따라 업무의 성질, 난이도 및 책임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직렬, 직급별로 업무의 특성과 개인별 능력을 고려한 인사 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생활근거지가 청주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내신제 실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 12월에 본청 전입공모를 실시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8명에 대하여 전입 발령을 한 바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인사상담 코너 운영 등 인사고충 해소와 희망 근무지에 5명을 배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인 희망 근무지 배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사립학교의 정원내 인원이면서 다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해당 과목, 근무년수 등의 실태, 그리고 도교육청의 지도 감독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 교원은 세명고 등 5개교에서 6개 과목 8명으로 기간제

교원이 계약기간 동안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인별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화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 및 탈락 직종의 경우 그들에 대한 처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현재까지 비정규직 무기계약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관계법이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바 공공부문은 2006년 8월 발표된 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거 법 시행 전에 무기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절차는 각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교육부에서 취합하여 그 결과를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환 시기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 관련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우선 담당 직무의 성격상 요건이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된 자를 대상으로 하

고 있습니다.

한편 비전환 탈락 직종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 근로계약과 신분이 유지되며 기간제 보호 등 관련법에 의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와 동일한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관리와 특히 학교장 채용의 경우 근무일수 축소 등의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사례가 있다면 그 경위와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 보조직종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학교회계 이양 사업으로 기본경비에 포함하여 총액 교부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장의 자율권 보장을 통한 책임경영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무일수 축소 등 근로조건 변경은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 전반을 고려하여 구성원 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이는 단위학교 자율 경영 책임제 하에 학교장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도내 학교 중 비정규직 근무일수가 학교 형편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시

한 기준안에 미달되는 학교수는 11개교 6개 직종 14명이며 초과 운영되는 학교는 83개교 7개 직종 291명입니다.

다음은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분석, 혹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를 통합하고 외주화나 용역화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중 일반적 배치기준에 의한 단순 유사 직종에 대한 업무 통합은 인력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교육부에서 적극 검토중인 학교규모별 비정규 정수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마련되는 대로 업무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수준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비정규직 관련 외주화 및 용역화는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아 향후 외주화 등 조치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 업무의 선정의 합리적 원칙 정립은 물론,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께서 일반직 인사 관련, 직속기관 업무 조정과 비정규직의 근무일수 계산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일반직 인사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공모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내부공모제는 다수의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도록 응모기준을 최대한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수직렬의 복수직렬 임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학생회관 관리과장, 시설과 시설기획담당 및 민자투자사업담당을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하도록 복수직렬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인사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서직, 보건직의 복수직렬화는 업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 직급 장기재직자 승진임용과 시설직 공무원의 복수직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중 보건직 1명을 금년 3월 1일자로 6급 승진임용을 실시하였고, 시설직의 복수직 임용은 향후 인력수급을 고려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교육청에 시설 6급을 복수로 임용하는 것은 조직 체계와 업무의 난이도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역교육청 소속 도서관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인력 증원 및 사서직 수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업 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타 부서 근무자보다 우대하고 있으나 인력증원은 현재의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원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서직 수당 인상은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 규정 개정 시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간 사업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직진단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력재배치 및 사업 통합을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규직의 근무일수 계산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근무일수 계산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비정규직의 연간 근로일에 대한 산정은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및 학교운

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근로계약 체결 시 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청주의 공립 초·중·고 101개 학교 중 27개 학교의 9개 직종 85명이 휴무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근무일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 연수 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교에 통보함으로써 근무일수 산정에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수도요금 경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양식 변화로 생활체육 및 평생교육 등 학교시설 개방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 인정하여 일부를 감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수도요금을 경감하고자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 받지 않고 해당 업종의 1단계 요금만 적용 받거나 교육용에 대한 업종을 신설하여 낮은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군의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31 지방선거 시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 출마자에게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선거공

약으로 요구한 바 있고, 2007년 1월에는 시장·군수 및 의장에게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교육장 및 관리과장 회의 시에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교장·교감단협의회 등 교육 관련 협의체를 중심으로 수도급수 조례 개정 건의서를 시장·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청주시 학부모 및 시민 3만 1,776명이 서명한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청원서를 청주시 의회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3월 29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각급 학교 수도 사용 현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52개교 학교에서 2006년도에 상수도 요금으로 26억 8,640만원을 납부하였습지만 이를 1단계 요금 적용 시에는 14억 939만원으로 12억 7,700만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급수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청에 성과금으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이 경감되어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 의장 성영웅

그러면 보충질문은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보충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스승의날 기념식 행사 참석 후 바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간담회 협의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로 의석 순으로 하되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곽정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곽정수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웅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정수 위원

교육위원 곽정수입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 선발 제도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입고사제도 병행 실시는 전국적인 추세다 실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답변서에서도 나왔듯이 제주 충남 전남과 더불어 2008년도에 강원, 경북 포항시가 실시 예정이고, 부산은 2009년도에 시행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광주도 3,000만원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책정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무한 경쟁시대에 시행을 늦추거나 안하는 쪽으로 간다면 우리 지역 인재양성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며, 3류 도, 충청북도가 1류, 2류, 3류 하는 3류 도가

된다는 얘기죠, 3류 도로 전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곽정수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입선발고사 시행 도입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후 여론이 비등하게 나올 경우 2008년도 예산에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고입선발고사 시행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입전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입전형 방법의 변화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장초빙제 확대 시행에 대한 답변에서 청주시 소재 학교 서원고와 청원군 소재 학교 갈원초를 지정해서 2007년 9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공모에 응모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분의 서운함에 대한 염려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지 말고 좀더 진취적으로 접근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서 발빠른 변화와 발전을 꾀하기를 바라며, 젊고 의욕있는 관리자들에게 좀더 기회를 확대함이 타당

하다고 생각이 돼서 앞으로의 공모제나 초빙제에 대한 시행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교장 응모와 초빙에 대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또 시행할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9월 1일자로 말씀하신 대로 서원고와 청원군 갈원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시범운영의 절차에 들어갔고 또 지금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탈락한 학교나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한 교장선생님들을 위해서 2008년 3월 1일자 시범운영에 초등학교 1개교, 또 중등 1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이고, 2008년 9월 이후로는 점차 확대 여부를,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정수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초·중학교 남교사 일정비율 임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모 교육청은 초·중학교 교원 신규임용시 남교사의 선발 비율을 30% 이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처럼 합격자 중 특정 성별에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제를 교원임용제도에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현재의 법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움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본 도의 답변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답변내용을 존중하며 향후 계획 및 진행과정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교사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어느 한편의 성 비율이 불균형해짐에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또 학교 교육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지금 교육현장의 큰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기본적으로 답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사 임용에 있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교사를 신규채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의 비율이 강제적으로 배정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법 개정 등 많은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부 제약이나 여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성 비율이 균형에 맞도록 최종적으로 여러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쪽에서도 지금 법으로 딱 규정이 돼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모색하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정수 위원

지금 여기 타 교육청이라고 한 게 서울시교육청인데 서울시교육청은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충북은 지금부터 검토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면 좀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단독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서, 16개 교육감님들이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면평가제 적용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관리자 선발에 관한 다면평가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로다가 모 교육청에는 올해부터 초·중·고의 교감 승진심사 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평가를 반영키로 했다고 4월 6일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승진심사 시 학부모 평가를 반영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교감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올해 초등 교감 연수 대상자 97명, 중등 연수 대상자 145명 등 교감 승진대상자 전원의 과거 동료 교사, 학부모 등 500여 명에게 대상자 전원을 무작위로다가 전화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승진대상자의 수업지도 능력이나 교사로서의 품위와 사생활 등 결격사유 여부를 조사하였고,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승진대상자 1명이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라서 승진에서 탈락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전의 면접고사에만 의존한 선발방식을 탈피해서 대상자의 인성과 자질을 보다 다면적으로 검증해 나가는데 이 같은 승진제도 개선 효과가 부적격자 선발을 방지하는 효과 외에도 앞으로 교감승진을 희망하는 교원들에게 평소 자기관리와 직무능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파급효

과도 기대할 수 있고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관리자는 앞으로 이 같은 제도를 통해서만이, 또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자는 아예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본 도에서는 현행 규정만 강조하지 말고, 언제 2008년 이후, 그것도 교육부와 협의하여서, 또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제도는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행 의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전문직선발 임용 시 새로운 선발방법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행정직은 사무관 승진방법이 고사제와 추천제로 병행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직 선발에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사 성적이나 면접 점수로만 선발하는 방법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능률은 고사 성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울러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문직뿐만 아니라 진학지도사의 선발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 **곽정수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곽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교육감님이나 양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은 해당 과장님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정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기록을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누가 말씀하시는지 꼭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우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행정질문에 대해서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원님들 의견을 교육주체들의 고견으로 여기고 받아들여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지가 임히어져서 반

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있어서 답변이 질문에 비해서 다소 초점이 맞지 않거나 두루뭉실 넘어간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답변서에서 답하신 분들에게서 일단 해 주시고, 보완 설명이 있으시면 뒤에 실무진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상업계 고등학교 수업료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일반론에 그친 듯해서 명확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러저러한 여건들을 고려해보고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다셨는데요, 실현 가능성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그 부분은 오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타 전문계 계열하고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네, 기대해도 된다는 답변으로 들겠습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하고 전남은 이미 전문계로 포함시켜서 인문계보다는 적게 이렇게 책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도 실현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재정부담이 좀 따르다 손치더라도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을 불이익을 받아온 그런 부분들의 불이익을 속히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조금 사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10쪽에 전문계를 점차 축소하는 실정이라고, 다른 시·도들에서, 그 중간쯤에 전문계를 점차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전문계 학교들이,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계로 전환하기를 바래서 전문계 학교들 전체가 0줄어들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계로 분류하는 그 학교 분류군을 줄이고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신강택입니다.

그 부분은 전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계에서 일반계로 전환하는 것들이.....

● 김병우 위원

전환하는 요구가 많다는 얘기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업계를 일반계로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24쪽 관련인데요, 학생교육담당 직속기관의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질문드린 데 대해서 그 밑에 부분에 수련활동을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스템이나 인력을 가지고 도 교육성과가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의하면은 조금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정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된다면은 이쪽에 투입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 교육요원 수를 포함한 인적 구성을 다른 시·도 유사 기관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와서 직접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검토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체 인적자원 배분에서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전체 인원 중에서 적게 나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제가 질문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16개 시·도 22개 유사기관을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도의 학생종합수련원보다 훨씬 많은 전문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아이들 지도를 현장에서 해보지 않았습시다만은 학생종합수련원의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이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거기 배치되어 있는 6명의 지도요원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인솔 학교의 자체 지도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그 내용은 실무진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답변서에도 있듯이 6명이 도내 학생들의 종합수련을 담당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충분하고 또 어려움

이 없다는 것은 문맥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현실을 꼭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원장을 일반직 정원과 관련하여 검토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은 전문 학생수련 기관의 원장을 적합성이나 전문성을 검토하지 않고 일반직 정원하고 관련해서 검토한다는 말은 좀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혹시 위인설관으로 비칠 소지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이게 학생종합수련원이 지금 현재 일반직 기관장으로 보임이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일반직 정원하고 연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요 그게 일반직 정원으로만 된 건지, 아니면 일반직 또는 전문직 복수정원인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에 22개 학생수련 관련 기관을 보니까 대구의 해양수련원 포항에 있는 거, 그리고 대전의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 그리고 우리 종합수련원, 이 세 군데만 일반직으로 원장님이 보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부이사관이고

다른 두 곳은 서기관이더군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답변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어서 했던 것이고요, 뭐 일반직이다 전문직이다 그것이 전문성을 가르는 잣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타 시·도하고 사례를 보고, 특히 우리 도의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을 지을텐데 그 기관의 성격이나 위상과 관련지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6쪽에 학교급식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먹는 양이 다르고 1식 학교나 3식 학교가 업무량이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처럼 학생수에 따라 조리사 정원을 배정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말씀인가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은 중식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며, 조식, 석식으로 인한 별도의 인원 배치는 급식인원, 조리 공간

및 배식방법 등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학교 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석식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의 급식비를 추가로 징수함에 따라 별도의 조리종사원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는 추가 인원과 중식에 따른 기본인력을 교대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더 필요하면 학교 자체로 인력을 증원해서 써라.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정원을 늘려서 교대근무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들이 이것을 학교에다가 내려보낸 겁니다, 기본방향을 통해서.

● 김병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현재 3식 학교 기피현상을 인정을 하셨어요. 그죠? 3식 학교가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고 인정하셨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아니죠. 그것은 기피하기 때문에 그 근

무연한 제도를 뒤서 2년을 근무한 사람한테는 인사상의 도움을 주고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기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기피하지 않는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그것을 2년씩을 순회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인사.....

● 김병우 위원

그 3식 학교 종사원들의 근무실태를 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 김병우 위원

몇 시에 출근하는지 아십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아침 일찍 와서 아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옵니다.

● 김병우 위원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야 되고 저녁 설거지까지 마치고 가려면 9시가 넘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의 격무에 시달립니다. 거기에 보조인력을 쓰더라도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순환근무를 2년 단위로 지금 하시잖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 김병우 위원

그것을 1년으로 줄일 수는 없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글쎄,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보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너무나 근무여건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그런데 그런 학교 배정되는 조리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우선 보내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렇게 과다한 근무를 해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을 보낸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3식 근무자의 조리보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청주시내 근무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순번대로 해서 경력이나 순위를 정해서 2년 단위로 해서 2년만 하면 바로 3식 근무를 해제를 하고, 아마 보편은 그렇게 한번 근무한 곳에 금방 그 순위가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원 여건이 허락을 하면 3식 기관에 정

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총정원 제로 있어가지고 정원을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런 것을 근무여건의 형평을 당연히 조성을 해 놓고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조정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근무여건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 되도록 그것도 고루 맡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일단은 그쪽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인력이 꼭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할텐데 여기에 인사우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가능한이면 본인의 희망지를 받는다든지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성과상여금 할 때도 반영하는 비율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성과상여금요?

● 총무과장 신건환

예

● 김병우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15시간 이렇게 격무를, 시간외근무수당도 있고, 또 성과상여금도 있고 물질적인 보상도 되겠지만 근

무 자체가 15시간은 너무나 어려운 근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리고 고루 분담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좀전에 답변드린 대로 현행 총정원제 때문에 그 정원을 더 확보해서 거기 더 투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식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다 한 번씩 근무를 하는, 전체적으로 보면 형평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병우 위원

보직 기간을 한 1년으로 줄이는 것은 그 형평성을 깨는 것은 아니죠?

● 총무과장 신건환

그것은 아닌데요, 어차피 과거에 시행된 것을 보면 그것을 정할 때도 식품위생직의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한번 근무하는 거 2년 근무하고 나온다 하는 그렇게, 1년으로 하면 또 순환이 빠릅니다. 빨리 돌아오니까 한번 근무할 때 한 2년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조리종사원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 김병우 위원

현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종사원들의 고충을 귀를 여시고 들어보시고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예

● 김병우 위원

그 다음에 48쪽 문화동아리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하려면 해당 부서 업무가 과중될텐데 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모색하고 교사문화제 개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들은 답변 중에 제일 시원한 답변입니다.

다만 그 날짜를 2월말경으로 하고 스승의날로 옮겨 실시하는 방안을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검토의견은 안 주셨네요?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교사들의 사기양양을 위한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스승의날을 학년말로 옮겨서 교사문화제를 여는 방안에 대한 말씀은 스승의날을 학년말로 옮기는 문제는 도 단위에서 결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그 학년말이 교사 전보나 생활기록부 작성, 대입 업무, 신학년도 학교교육 기획서 작성 등 교사문화제의 주체인 교사들의 분주함이 예상되어서 차후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든 동아리 주체의 합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교사문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스승의날 얘기를 했는데 스승의날을 통째로 그 이름까지 달고 옮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근무여건에 유들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했던 것이 아닌데 김부웅 위원님 질문사항 중에서 54쪽에 화장실 청소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보태겠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지역신문 칼럼으로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예산배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당 한 사람의 청소 인력이 한 90만 원 정도 될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예산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입니다.

우리 도 예산이 총 21억 3,390만원입니

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에서 10억 6,920만원 대주고 자체에서 16억 6,47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자체 16억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10억요, 10억.

● 김병우 위원

여기에 5 대 5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이기 때문에 아마 절반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텐데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1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 김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용역은 자활 후견 기관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 의뢰하게 돼 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예, 자활 후견 기관에서 합니다.

● 김병우 위원

일반 용역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일반 용역에서는 안 하고 그룹관리를 해서, 교육부의 원칙이 그룹관리로 해 달라고 해서 자활 후견으로, 자활 후견.

● 김병우 위원

자활 후견 기관에 의뢰를 하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다섯 개 학교를 그룹관리로 주1회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답변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같은 인력을 한 학교에 한 명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전담시키는 방안은 생각 안 하셨나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글쎄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상주 시 학교별 형평성이 우려됩니다, 큰 학교와 작은 학교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 농산촌 같은 데, 작은 학교는 그룹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내 학교,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5개 학교를 5명이 주1회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한 명을 학교에 상주시켜서 전담케 하는 방안이 작년에 청주 시내에 남평초등학교 같은 데서 아주 효과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알았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리고 64쪽에 서수웅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도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키즈케어 관련인데요, 제가 착안했던 사항은 아닙니다만 답변서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방향이 잘못 짚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수웅 위원님 질문내용 중에도 이런 답을 기대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답변을 보니까 장점이 많고 우려될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은근히 조장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시·도에서 문제되었던 것을 아시는가요?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어떤 사항이 문제되었는지 저희들은 크게 아직까지.....

● 김병우 위원

못 들으셨어요?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 김병우 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교육청이 이것을 해당 기업하고 협약까지 맺었다가 반발이 심해서 파기까지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약까지 했다가 협약까지도 파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권침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답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편의적 관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동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려점으로도 기업의 상술 또는 부모들의 과잉보호, 이런 부분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감시의 상품화, 감시의 일상화라는 데 있습니다.

2002년도에 LG텔레콤에서 신변보호 서비스로 상품이 출발한 이후에 요즘에는 KT라든지 SKT, KTF, 하나포스 이런 데서 스쿨케어, 키즈케어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심코 행정편의적 관점으로부터만 바라보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보호라는 명분아래 감시시스템의 일상에 노출되고 길들여지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헌법 제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누려야 할 성인으로 자랄 아이들입니다.

전자테그가 달린 명찰을 달고 다니는

아이들은 객체화된 로버트로 자랄 우려가 있습니다.

강제적인 통제와 감시가 생활화된 어린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권력의 통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로버트처럼 순응하게 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대단히 조심스러워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가 표면화되기 전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키즈케어는 말 그대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파행적으로 상업화되어서 하다보니까 무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키즈케어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의 학생의 개인정보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키즈케어 시스템 활용보다는 가정과 학교의 연락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학부모회 활성화와 학교홈페이지를 이용한 학교의 공지사항이나 알림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도서관의 도서대출 카드도 학교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최대한 이런 부정적이고 이런 쪽을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국장님께서 답을 알고 계시니까 안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78쪽 내용 중에서 간단한 것을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인데요 여쭙보겠습니다.

도교육청 지원 비정규직 인건비를 학교 회계로 이양해서 기본경비로 총액 교부한 뒤에 근로조건을 줄여서 변경하더라도 학교 경영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못한다, 압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은 인건비는 회수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그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비정규직 채용에 관해서는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결정하는 사항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거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고 산출기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총액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성원 간에 협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권을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부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365일로 산정된 비정규직을 275일 임용하고서 남는 경비라는 것은 그 총액에서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은 받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수목적경비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 잔액 같은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지.....

● 김병우 위원

360일 근무해도 지원되는 경비를 275일 근무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신건환

예, 절약됩니다.

● 김병우 위원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남게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신건환

예, 일반 교육활동 경비에 쓰고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안 쥐도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신건환

예, 그렇습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봤던 것은 일선 학교

관리자 분들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 집착을 하시다보면 방학 때 같은 때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쓰는 것 같다, 그 인건비를 남겨서 다른 데 돌려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일단 거기에서 해당되는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인건비 쪽으로 단위학교 회계에 총액배분이 되는데 그것을 남겨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그 현황이 현재 그렇게 임용되어 있는 인원이 3,500명 중에서 14명이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14개 학교에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그 구성원 간에 협의를 해서 근로조건을 정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뭐 권장은 해보니다만은 각 학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권장은 해보니다만은 강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 또 83교에 근무하는 291명은 저희들이 정한 그 기준일수를 더해서 학교에서 타 경비에서 더 할애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더 임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인건비를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약간 그런 유혹을 만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쭙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 총무과장 신건환

돌려쓴다는 것보다는 예산의 산출기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교장 구성원간에 협의를 거쳐갖고 자율 편성하는 것입니다.

● 김병우 위원

그 부분을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는 부분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그 분들의 그런 어떤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신건환

예

● 김병우 위원

이상으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주신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가능한 부분들은 집행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실현이 좀 어려운 것들도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과 양 국장님께서 가능한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부웅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김부웅 위원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부웅 위원

교육위원 김부웅입니다.

오전중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적자원부의 감사 업무, 또 도의회 등 산적인 업무중에도 제가 많은 질문을 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몇 가지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학교별, 또 직급별, 직종별, 또 기관별로다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담아서 질문서를 보내드린 겁니다.

저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대학에 나오면 잘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좋은 유치원을 나오면

바르게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서를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원의 원감 배치 문제입니다.

저희 단설유치원 9곳이 있는데 원감 배치가 한 곳만 되고 있죠? 교육국장님도 좋고 초등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산성유치원 한 곳에 원장님과 원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원감 배치 문제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타 시·도의 배치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가장 열악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예

● **김부웅 위원**

그 예를 들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니까 서울이 10개 유치원에 10명 원감, 100%입니다. 부산이 5개 유치원에 100%, 강원도가 4개의 유치원에 거기는 좀 덜 했네요. 그 다음에 충남이 8개 유치원에 6개 유치원, 전북이 10개 유치원 100% 다 돼 있고, 전남 6개 유치원에 100%, 경북 7개 유치원에 100%, 경상 11개 유치원에 100%, 충북 9개 유치원에 한 곳 10%밖에 안 됩니다.

이 통계를 놓고 본다면요 정원 때문에 배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원 배치를 위해서 노력이 미흡했다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은 교육부로부터 푸대접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은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같이 노력했는데 다른 곳은 이렇게 많이 됐고, 저희 도가 제대로 정원이 안 된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저희들이 2006년도에 원감 증원을 요구해서 6명, 6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 정원을 원장님이 계시지 않고 원감이 없어서 힘든 병설유치원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도 원장 하나, 원감 1명을 받아서 금년에 홍광유치원에 원장은 배치를 하고, 원감은 9월 1일자 추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배치

하도록 이렇게 유보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오전중의 답변을 보면 굉장히 노력한 것처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단설유치원에는 9개 중에 한 군데만 배치되고 있으니까 타 시·도하고 형평이 아주 어긋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겠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교육공무원 정원 및 교원 정원, 공무원 정원에 관계되는 사안인 것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노력은 하지만 다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요,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비교하면서 교육부에 꾸준히 정원 요청을 지금도 하고 있고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를 하려고 해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단편적인 제 생각이라 좀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유아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도교육청 간부직이나 책임자들이 신경을 덜 쓰는 것이라고 밖에는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가 현행법에 의해서 아주 어렵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 거 아닙니까. 어렵다고 하면 배치 못하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런데 답을 보니까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해서 보건의 안전 교육은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초등학교, 중등학교도 마찬가지죠. 보건의교사를 배치안 하고서 교육과정을 충분히 운영해서 보건의 안전 교육을 하겠다. 사실은 유치원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보건의 안전 교육의 전문가가 배치되는 것이. 그런데 현행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참 유아들 교육 안전을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죠. 그렇더라도 우리 현행법 내에서 교육감님의 의지로 보건의교사를 겸직, 또는 순회 근무시킬 방안 없습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제반 법규나 규정을 참고로 하고, 또 찾아서 저희들도 가까운 학교나 인근 기관과 연계해서 유치원 보건의교육이나 안전 교육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부감님, 어떻습니까? 근무시킬 수 없는 겁니까?

●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검토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는 유아들한테 보건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손놓고 있다고 하면은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감님, 적절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단설유치원 기능직 배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저는 행정감사 때, 또 예산심의 때, 또 정원 조례 때도 아주 이것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잘 해결이 안 되네요. 지금 기능직이 4곳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느어느 유치원이에요?

● 총무과장 신건환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9개원 중에 지금 기능직이 배치된 곳은 산성유치원입니다. 산성유치원은 운전원 해서 기능직이 2명 배치되어 있고, 옥천 삼양, 대소, 단양 이 곳은 운전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배치된 것이 아니죠.

● 총무과장 신건환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 관리 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은.....

● 김부웅 위원

또 정원 얘기만 하시는.....

● 총무과장 신건환

아니 글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정원 관리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교육수첩에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남성유치원 자료를 보니까 원아가 132명이고 직원이 8명입니다. 그러면 어른 한 명당 16.5명 정도를 관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북초등학교를 보니까요 학생이 65명인데 어른이 14명, 그러면 어른 한 사람당 4.6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6명하고 4명하고는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더 유아들한테 더 많은 어른들이 근무를 해줘야 할텐데 자꾸 정원 얘기만 하고서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 총무과장 신건환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산성유치원 같이 시설관리가 완전히 독립이 되어 있다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는데요, 지금 단설유치원이라는 것이 나머지 8개는 과

거의 병설유치원, 한 구내에 있으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병설유치원과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초등학교에 있는 조무원을 겸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느 한 유치원을 예로 든다면 본청에.....

● 김부웅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 전에 병설 할 때의 인력을 해도 괜찮다는 의사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에 차라리 병설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도 내 거라고 관리를 해 준 겁니다. 검직 발령을 내놓으니까, 아이구 유치원 몰라 그것은 공문이나 보내주면 돼 하는 걸로다 생각해서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배치 안 하잖아요.

● 총무과장 신건환

그런데 저희들이 12학급 같은 경우에도 조무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같은 구내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시설관리가 한계가 있고 조무원이 배치된다고 하면 현재 그 건물관리에 국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 조무원들 하고의 근무 형평성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우선 긍정적으로 그 전체 조무원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 김부웅 위원

우리가 검토검토 하시는데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정말 눈물겨워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유치원에. 전부 여자들만 있는데 무슨 힘쓸 일이 있으면 그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능직 남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요전에 드렸고, 이제 조금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3세아 반에요 한번 여기 계신 책임자들 가보세요. 1시간만 애들 보시면은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 드실 겁니다. 3살짜리 는요 대소변을 못 가립니다, 이거. 한 아이가 싸놔, 그러면 선생님이 개를 가서 씻겨줘야 되겠죠. 나머지는 쌈질하고 난리 납니다. 그런데 정원관리상 배치를 못 하겠다고 자꾸 얘기만 하니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세아들 문제까지 같이 유치원에 너무 인력이 적어서 고생하는 거, 이런 걸 한번 우리 간부님들이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정원 관계 때문에, 또는 배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궁색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날 겁니다.

부교육감님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다음은 초등학교사 인사 문제입니다.

25쪽인데요. 이 문제는 학습권 보호 시각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문 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청주시내에 5월달쯤 해서 자리가 났다고 칩시다, 결원이 생겼다고 칩니다. 그러면 순위 명부라는 게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은 선생님이 들어와요. 그러면 보은에는 그 밖에 있는 어떤 선생님이 또 하나 들어온다 이거예요, 신규가 맨 마지막에 가니까. 그러면은 세 개 반에 담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양호한 편이에요. 보은군에 5월달에 출산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들어왔는데 청주시내 결원이 생겨서 이 선생님이 청주로 발령이 또 났어. 그러면 선생님이 또 바뀌죠. 그러면 1년에 4번이 바뀝니다, 이게.

중학생 생각하면 매 시간 바뀌니까 별개 아닌데 초등학교는 아니죠. 담임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 파악하기도 전에, 또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내 특성을 우리 선생님이 알기도 전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학기 도중에 결원

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신규배치를 해 주시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또 답변을 보니까 당채 아니죠. 9월 발령까지는 제가 요구 못하겠습니다만은 중간 발령은, 학기중 발령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 좀 보호합니다.

학년초에 발령난 사람하고 형평 문제를 얘기하는데 공무원 사회에 어차피 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운이 좋은 사람은 좀 늦게 나더라도 좋은 데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고서 해결해 주시면 애들 학습권이 보호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그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중간 결원되는 거.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현 규정 내에서는 어렵습니다만은 중등은 몰라도 초등의 경우 담임이 자주 바뀌는 것은 정말로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장교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게 청주시내 교장선생님들 다수의 의견

입니다. 학년초에 아주 애를 먹는다는 거예요. 부장교사 서로 안 한다 이거예요. 왜, 나는 승진도 안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억지로 맡겨놓으면 왜 내가 하기 싫다는 거 자꾸 맡겨놓고 시키느냐.

그래 답변에서 보니까 수당도 주고 승진가산점도 있는데 또 이동에 가산점 주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거 조금 주시면요 이런 게 생겨요. 청주 근무만료가 됐다, 그러면 인근에 진천이나 보은, 음성을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조금 점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단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떻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 **김부웅 위원**

중등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예

● **김부웅 위원**

이것은 초등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죄송합니다.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이 문제도 저희들 나름대로 형평성과 또 근무 및 이동 승진규정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학교 교육현장이 잘 운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부장교사의 가산점 문제는 교육감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죠?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확실히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학년초에.....

아주 비상 걸려요.

일선 교장하시다 들어오신 분 계시잖아요.

서수웅 위원님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형평성 형평성 하는데 사실은 중등은 제외하고 초등만 한다는 것도 이것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요, 교육감님 답변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요새 학교 사회가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도나도 담임도 달라, 가산점을 달라 등등 언급이 됐지만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상이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로 가산점을 줘서 학교운영상 여러 가지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파행적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교장선생님들 많은 분들의 요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에 국외연수 현황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요지에서는 유·초·중·고별로다가 통계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고, 먼저번 예산심의 때에 나온 자료를 검토해 봤고, 또 나중에 교육국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한다면 초등과장님께서 초등이나 중등 간에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고, 또 교육국장님께서 28 대 72의 비율로다가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도요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합니다. 따라서 영어 여건 연수가 중등에 비중이 가 있어야 할 이유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초등학교가 더 수요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 답변을 보면 다 비슷하죠.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답변이 됐어요, 이게. 그런데 금년도 추경심의 때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불균형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좀 시행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때요, 불균형을 해

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현재 숫자상으로 불균형이 돼 있는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스타 선진지 체험연수, 학력신장 지원 국외연수, 직업교육 유공교원 해외연수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고, 그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초·중·고 비율의 불균형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기 좀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5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근무 문제는 소속 학교장과 순회 겸직 학교장과 협의해서 근무토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학교에 보면요 겸직 학교나 순회 학교에는 주1회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회도 제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가를 내거나 또 소속 학교에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또 못 오게 됩니다. 따라서 겸직 학교나 순회 학교에는 보건교사 얼굴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소방안을 마련해 달라

고 했더니, 글썽 잘 안 되는가 보죠, 그게?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지침에는 만일에 파견학교, 겸직학교에 휴교나 행사, 또 본인의 개인사정, 출장 등으로 가지 못할 경우는 다른 날을 선택해서라도 꼭 한번씩 가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고, 회의 시나 이럴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또 다른 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겸직 학교의 어린이가 보건이나 영양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 김부웅 위원

고맙습니다.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들 겸직 순회하는 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태를 파악 좀 해 주세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겸직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소속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보내느냐, 연가 냈는데 어떻게 보내, 그러면 1

주일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즈케어는 아까 국장님이 적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생략을 하겠고, 화장실 문제도 김병우 위원님이 저보다 더 확실하게 해 주셨네요.

그래서 질문을 생략하고,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도중에 혹시 언성을 높인 게 있으면 양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수웅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서수웅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웅

서수웅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웅 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신 점 감안하고, 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담당관님께,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같이 고민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질문했던 36쪽, 37쪽에서 답

변하신 내용인데요, 일선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경감을 하겠다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업무경감팀이 구성된 지가 반년입니다.

그동안 1,2,3기에서 이루었던 실적은 차치하고요, 제4기에서 반년이 지났는데 협의회 두 번 개최했다, 이게 마음에 걸려서요 구체적으로 개최해서 거기서 협의된 내용이 어떤 건지 소개할 수 있습니까? 두 번.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올해 두 번요?

● 서수웅 위원

예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4기 교원업무경감연구팀이 발족된 것이 2006년 1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협의를 11월 20일날 1차 협의회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동계방학 하고 학년말 학년초가 됐어요. 또 이 구성원들이 전부 다 각급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직원으로다 구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떠한 일정 시간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 협의회를, 4월 5일날 2차 협의회를 전체 가졌는데 전부 다 한꺼번에 일정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그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연구협의회를 한다든가 또 정보공유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1차. 그래 이제 3분과로 형성이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수웅 위원

그러니까 거기 협의한 내용이 앞으로 잘해 보자는 얘기였고요.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 서수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한다, 이게 목적인데 이게 현장에서 혁신업무를 먼저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공감하는 얘기고요, 그래 이제 그 혁신을 담당한 담당자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다고 그래서 혁신 안 되잖아요. 현장의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동조할 게 아니라 설득시키고 어떠한 홍보를 하고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부터 먼저 하는 것이 혁신의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혁신 실적을 위한 혁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혁신 하면 염증을 느낀다, 그런 것을 제가 전해 드리고 싶은 거고

요, 혁신연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혁신연수 한다고 해 가지고 혁신연수라고 가보면 일반연수와 다를 게 없는데 무슨 혁신연수냐. 거기서 왜 혁신을 해야 되는가를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했어야 했는데 여기서 혁신업무 하나 해 주시오, 그러면 단재에서 말아가지고 한 강좌 넣어서 하니까 거기 수강생들이 와서 불평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혁신담당자들이 이 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실적을 위한 그런 것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혁신이 여기서 목적인 대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여기서 먼저 해서 현장에서, 이것을 업무를 줄인다고 해서 공문을 줄인다고 그랬는데 공문이 실제로 얼마나 줄고 있는가를 학교 샘플로 해봐서 안 가도 될 공문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간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줄 때 학교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몇 학교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혁신에 관한 거 나간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업무를 추진했으니까 금년 1/4분기에는 작년 1/4분기보다 줄었으리라고 봤더니 안 줄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안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꾸 애

기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반년 동안에 겨우 협의회 두 번 한 걸로, 그냥 협의회 두 번 한 실적 이것을 중요시할 게 아니라 어떻게 현장에서 연구 구성한 우리 위원회가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일선에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데다 노력점을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 서수웅 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업무경감을 학교에서 체감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했는데도 현장에서 못 느끼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낀 다음에 앞으로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일선 학교에서 정말 우리가 신명나게 어린이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갈 수 있도록 공문도 계획해 보시고, 어떠한 연수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강좌 프로그램을 넣어서, 혁신담당자 연수를 갔더니 이것은 다른 업무적인 게 지시 명령이 아니라 정말 뭔가, 아, 이게 맞다, 희망적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런 쪽에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으로 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성영웅

서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일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상일 위원 의석에서 “예”)

● 의장 성영웅

이상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릴 제목은 그 여교사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보육시설의 필요성은 느끼고 공감하나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단위학교로 계산하지 말고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등 여교사 수가 많은 지역을 시·군교육청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다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

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교육국장 박의상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상시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쪽에는 구체적으로 연구는 죄송하지만 못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도 한번 숙고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상 300인에서 500인 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을 지키다보니 실질적으로 보육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비율을 계산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집행청에서 답변이 부실하다 책임 추궁이 아니라 우리 여교사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서로 고민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육아휴직 현황을 보니까 초등의 경우 청주교육청에 21명, 충주교육청에 5명, 제천이 9명, 중등에 청주교육청이 23명, 충주교육청 9명, 제천이 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보니까 훨씬 늘었어요.

초등이 여교사 수가 1,702명인데 육아 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45명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또 충주는 여교사 수가 510명에 7명, 제천이 여교사 수 348명에 2명, 중등은 청주교육청이 여교사 수 1,245명에, 이것은 좀 줄었습니다, 3명이고, 충주가 9명, 제천이 8명, 이렇게 육아를 위해서 휴직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3세 이상은 병설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아와 유아, 즉 유치원 입학하기 전의 자녀, 1살, 2살짜리, 이 영아를 또 유아를 맡을 보육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시교육청 단위로 1개 내지 2개 정도의 시범운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3대 교육위원 때도 이것을 제안한 바가 있지만 그때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충주지역의 여교사 협의회 회원들로부터 눈물겨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데 이 젖먹이를 어디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런 아이를 떼어놓고 출근하는 어머니가 올바른

게 수업에 전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눈물겨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청주 충주 제천 같은 데는 변두리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서서 도심이 공동화되고 그 안에 큰 학교들이 유휴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학교는 과거에 학생 수가 2,500 내지 3,000명 가까운 학생이 지금 700명, 800명으로 줄었다면 상당히 많은 유휴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를 개·보수한다면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보육비용도 전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여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50%는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그리고 자치단체별로 상의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50% 정도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실을 종합해서 시설을 우리가 유휴교실에다가 하고, 보육비는 본인들이 한 5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 정도 지원을 받으면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효과는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운영이 잘 된다면 출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전문화된 보육프로그램의 수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의 우수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돼서 여교사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낳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규정을 넘어서 우리 충북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요금 이것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아주 전향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답변도 딱 만족했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우리 충북 도내에서 2006년도 상수도요금이 약 26억 8,640만원 납부했는데 이것을 교육용, 또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할 때 약 12억 7,700만원 절감되는 효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2006년도 기준이지만 해마다 수도 사용료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연차적으로 하면 막대한 돈인데, 막상 학교 수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만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 각종 체육대회, 축제, 이거 학교를 개방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씩니다.

또 전국단위 대회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치해서 잔치는 해 놓고 뒤풀리는 전부 학교가 해야 됩니다. 또 요새 아침 저녁으로 동아리 체육대회가 와서 물을 마냥 씩니다.

그런데 돈 없는 학교에다가 그 수도요금 다 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책임이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님께서서는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끝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답변 중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지역의 교육청에 성과금으로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1억이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절감액을 그제 실시돼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요금을 적용하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청에는 50%를 절감해 준다고 하면 교육장이나 지역의 학부모 단체나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강하게 시의원, 군의원들을 압박해서

라도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구체적으로 1억원 이렇게 해 놓으면 작은 지역의 1억원, 청주의 1억원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마냥 수십억이 절감되는 데는 거기에 2분의 1, 이렇게라도 해서 그게 된다면 전국에 좋은 수범사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절감되는 경비가 우리 아이들의 직접교육비로 활용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 제 부탁의 말씀도 거기에 첨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성영웅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없으시면은 아까 보충질문 중에 추후에 답변하신다는 부분이 셋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수 위원님께서 중등과장님께 물으신 중에 다면평가와 전문직 추천 선발 문제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초등하고 공통된 사항이라서 그 답변내용을 초등에서 작성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이렇게.

●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교감 승진과 교장 중임 시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관리자의 발탁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다면평가를 반영해서 유능한 관리자 발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셔서 2008년 이후에는 교육부와 협의하고 타 시·도의 사례 및 우리 도만의 특별한 다면평가 방법을 구안해서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직 선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반직 선발방법을 참고해서 제반 규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시험만 잘 보는 전문직이 아닌 유능하고 업무추진력 있는 전문직을 선발하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곽정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곽정수 위원 의석에서 “예, 됐습니다.”)

● 의장 성영웅

다음에는 부감님께서 답하신 부분 중에 김병우 위원님께서 학생수련원 원장 정원

과 일반직 내지는 전문직 관계 확인과 김 부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후에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감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김효겸

우리는 도는 현재 전문직하고 일반직하고 혼합된 정원이 아니고요 일반직으로만 된 정원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충북하고 대구 등에서는 일반직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그 보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하는 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성영웅

김병우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미흡한 건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학교별로 자체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원에서 이렇게 계획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그 실태를 좀.....”)

● 부교육감 김효겸

제가 알기에는 이 프로그램 하는 것은 원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달라는 일부 주문을 하면은 그 주문한 것을 참고해서 수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김병우 위원 의석에서 “거기서 시설만 하고 관리만 하는 프로그램은 없나요?”)

● 부교육감 김효겸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부옹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단설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 후에 말씀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 부교육감 김효겸

단설유치원 유아 교사 배치 문제는 앞으로 정원 증원과 같이 연동해서 검토하고요, 증원이 되도록 교육부측과 협의해서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김부옹 위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김부옹 위원 의석에서 “다 정원 문제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 의장 성영웅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2일 동안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

[제204회-제3차 본회의]

해 주신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사항 등은 충북교육 정책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를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은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교육정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

여 왔고, 또한 청렴한 업무집행과 봉사행정을 위한 전 직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지적사항보다 우수사례가 더 많이 발굴되는 감사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끝으로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위한 신나는 교실,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하여 앞차고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김효겸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폐회)

○ 출석위원 : 6명

의장 성영용, 부의장곽정수,
위원 김병우, 김부웅, 서수웅, 이상일.

○ 출석공무원 : 15명

교육감 이기용, 부교육감 김효겸, 교육국장 박의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초등교육과장 김주환, 중등교육과장 하재성,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준철, 총무과장 신건환,
기획관리과장 김장한,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 시설과장 안세열.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7. 5. .

의 장 성 영 용 成永龍

위 원 김 부 웅 김부웅

위 원 박 노 성 박노성

의사국장 박 경 석 박경석

(별첨 1)

의 사 일 정 (안)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2007. 5. 8. ~ 5. 11.(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5월 8일(화) 11:00	☐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20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7. 5. 8. ~ 5. 11.(4일간) 2. 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신설학교 현장 방문의 건 (의장 제의) ☐ 산 회	제안설명
5월 9일(수) 10:00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산 회	
5월10일(목)	☐ 신설학교 현장 방문 ○ 성화초 신축현장, 송절중 신축현장	본회의 휴 회
5월 11일(금) 10:00	[제3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집행기관 답변) ☐ 산 회 ☐ 폐 회	

